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전시연계 세계시민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강병주

전시연계 세계시민 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도교수 김형숙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강병주

강병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8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근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증진됨에 따라 세계시민으로서의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위시하여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타 문화권에 대한 전시와 이와 연계된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위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5개정 교육과정안'에 기재되어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교과역량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 공적개발원조(ODA)'의 원칙 안에서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은 가족단위의 수업으로 진행되었고,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표'를 통해 학습자의 학습성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연구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전시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는가?"이며, 두 번째는 "학습자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통해 실제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이 '2015개정 교육과정안'중 미술과 교과역량인 '미술 문화 이해 능력'과 '문화 ODA 시행원칙'을 반영하여 구성될 수 있었음을 보였으며, 학습자가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성과 영역 중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에 학습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요어 : 국제개발협력교육, 문화예술교육ODA, 미술교육프로그램 개발, 세계시민 예술교육, 전시연계교육
학 번 : 2014-21005

목 차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4
3. 연구의 중요성 ····· 6

Ⅱ. 이론적 배경 ····· 8
1.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 8
(1) 세계시민교육의 발전과정 ····· 8
가.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및 내용 ····· 13
나. KOICA지구촌체험관의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 및 내용 ····· 20
(2) 문화예술교육 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 26
2.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필요성 ····· 33
(1)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 ····· 33
(2) 전시연계 수업을 통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필요성 ····· 35
(3) 미술교과서 내 국제개발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 37

Ⅲ. 연구 방법 ····· 50
1. 연구절차 ····· 50
2. 연구참여 대상 ····· 51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53

Ⅳ. 전시 연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적용 : KOICA지구촌체험관을 중심으로 ····· 56
1. 교육프로그램 개발 ····· 56
(1) 연구배경 ····· 56
가. 프로그램 목표 ····· 61
나. 학습활동 내용 ····· 62
다. 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점 ····· 63
라. 교수학습지도안 ····· 64

Ⅴ. 연구결과 분석 ····· 66
1. 연구결과 내용 종합 ····· 66
2. 연구결과 분석 ····· 67
(1) 설문답변 내용 분석 ····· 67
가. 설문지 1번 문항 설문답변 ····· 70
나. 설문지 2번 문항 설문답변 ····· 77
3. 연구결과 시사점 ····· 79

Ⅵ. 결론 ····· 84

참고문헌 ····· 88

부록 ····· 93

Abstract ····· 110

표 목 차

[표 1]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정기교육으로 진행된 전시연계 예술교육 ····· 24
[표 2] 문화다양성협약 내 문화ODA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조문 ····· 27
[표 3]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중요한 원칙 ····· 29
[표 4]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간의 비교 항목 기준 부류 ····· 30
[표 5]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 36
[표 6] 미술교과서 내 세계시민내용 ····· 39
[표 7]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 ····· 53
[표 8] 2차-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기준표 ····· 55
[표 9] 다마르 쿠룽 스토리텔러 되기 교수학습지도안 ····· 64
[표 10] 연구결과적용 ····· 66
[표 11]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 68
[표 12] 아동용 설문지 ····· 69
[표 13] 2차 분석기준표에 따른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2번 문항 분석 결과 ····· 77
[표 14] 2차 분석기준표에 따른 아동용 설문지 2번 문항 분석 결과 ····· 78

그 림 목 차

[그림 1] 국제개발협력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단계별 발전 과정 ····· 12
[그림 2] 실행연구 과정 ····· 50
[그림 3] 인도네시아 다마르 쿠룽 연등 ····· 59
[그림 4] 연구참여자 가족 A1의 작품제작 결과물 ····· 70
[그림 5] 연구참여자 가족 A2의 작품제작 결과물 ····· 71
[그림 6] 연구참여자 가족 A3의 작품제작 결과물 ····· 71
[그림 7] 연구참여자 가족 A4의 작품제작 결과물 ····· 72
[그림 8] 연구참여자 가족 A5의 작품제작 결과물 ····· 72
[그림 9] 연구참여자 가족 A6의 작품제작 결과물 ····· 73
[그림 10] 연구참여자 가족 A7의 작품제작 결과물 ····· 74
[그림 11] 연구참여자 가족 A8의 작품제작 결과물 ····· 74
[그림 12] 연구참여자 가족 A9의 작품제작 결과물 ····· 75
[그림 13] 연구참여자 가족 A10의 작품제작 결과물 ····· 76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커피전문점을 방문하게 되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에는 “플라스틱 빨대 거북이”, “태평양 플라스틱 쓰레기 섬”등의 키워드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기사가 헤드라인으로 자주 보도되고 있다.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은 우리에게 당장의 편의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태평양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들에는 위협이 되는 존재이다. 한편, 팜유(palm oil)는 많은 양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 각지에서 무분별하게 생산되어 우리의 먹거리, 생필품,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 팜유의 최대 생산지는 개발도상국들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저렴하게 생산된 팜유는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어 우리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으며, 팜유농장에서는 저임금으로 고용된 어린 아이들이 인권의 보호도 없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팜유를 생산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국경의 범위를 넘어서 각 나라 간 교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두에게 물질적 풍요와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발도상국은 절대적이며 상대적인 빈곤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인데, 국제사회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을 시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개발자원(resources for development)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가 있다(KOICA ODA교육원, 2018: 41-43). 보통 국제개발협력은 시혜적인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개발수요(development needs)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상호 간에서도 이루어지는 개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KOICA ODA교육원, 2018: 40-56).

2000년대는 유엔의 주도 하에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의 수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지속가능개발목표에는 개발재원의 확대와 함께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영역 중 교육분야에서도 기존에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던 개발재원이 선진국으로 확장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교육의 여러 교육적 의제들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으로 결집되기에 이르렀다.

국제개발협력의 교육목표(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안에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은 범지구적인 이슈를 주제로 학습이 이루어지며, 학습자의 윤리적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성이 높은 사회과와 도덕과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반면, 미술과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학습주제로 삼고 있는 주요 내용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미술교육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계시민교육이 정서적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세계시민교육의 교육목표에 도달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학습자는 미술활동을 통해 창의성과 감성을 획득할 수 있고, 나아가 자문화와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성도 외2, 2017: 31). 한편, 미술활동은 개인의 표현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개별 활동인 동시에, 개인의 생각을 타인들과 공유하며 합동으로 작품을 창작하는 협동

활동이기도 하다. 오늘날 청소년은 대화가 부족한 가족의 영향 아래 성장하여, 학교생활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최근 미술관·박물관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다. 미술관·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협동으로 미술작품을 창작하게 될 때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정연희, 2010: 10에서 재인용).

세계시민교육은 정서적 영역을 강조하는 동시에 행동적 영역도 강조하고 있는데, 행동적 영역은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세계 공통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하는 자세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술교육이 학습자의 표현에 주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제작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자세를 길러줄 수 있다. 아이들의 표현력은 '현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체험학습 공간에서 증진될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전시관에서는 '실제적 오브제(objects)'를 매개로 교육프로그램이 구상되기 때문에(김형숙, 2000: 229-230), 학습자는 오브제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오브제를 매개로 구성된 전시연계 교육을 통해 학습자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전시관의 오브제를 활용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을 갖고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전시연계수업으로 진행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의의와 목표를 제안하고, 이에 입각하여 실제 가족단위로 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고 수행함으로써 해당 목표가 실제 교육을 통해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당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해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전시관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을 토대로 세계시민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현하고, 미술교육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전시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는가?
·학습자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통해 실제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두 가지 연구문제를 갖고, Ⅱ장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1절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2절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한다. 1절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정 가운데 국제개발협력교육이 세계시민교육으로 집결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세계시민교육을 기존에 논의되어온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과의 관련성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ODA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2절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필요성에서는 미술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연구를 선행연구로 검토하였다.[1] 다음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미술관·박물관의 사례를 살펴보고,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초·중·고 검·인정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자한다.

Ⅲ장의 연구방법에서는 본 연구가 연구절차를 통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연구참여자 선정 원칙을 제시하고자한다.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에서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표를 기반으로

1) 선행연구에는 강문지(2018), 곽민희(2015), 권희연(2017), 김근영(2018), 김지선(2014), 김지연(2019), 김형숙(2018), 나희연(2016), 도성제(2015), 서윤진(2011), 정연희(2011), 이서연(2015), 이지연(2008), 최은영 외4(2017), 최은지(2019), 현민정(2017)으로 총 16편이 있었다.

하여 설문지 2번 문항의 답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Ⅳ장의 전시관 연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적용 : KOICA지구촌체험관을 중심으로 에서는 1장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2장 교육프로그램 적용결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고자한다. 1장 연구배경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프로그램 목표에서는 2015 개정 미술과 교과역량 중 미적 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목표를 3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활동 내용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교육프로그램에서 학습하게 되는 내용의 전반을 다루고자한다. 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점에서는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자한다. 교수학습지도안에서는 교안을 구성하는 단계(분), 학습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유의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한다.

Ⅴ장의 연구결과 분석에서는 1장 연구결과 적용과 2장 연구결과 분석으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고자한다. 1장 연구결과 적용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한 일자와 인원수를 종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장 연구결과 분석에서는 실행연구에서 수집된 설문지 답변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지 1번 문항에서는 설문지 2번 문항은 2차-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성과표를 기반으로 답변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3장 연구결과 시사점에서는 수집된 설문지 답변내용을 통해 도출해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자한다.

Ⅵ장의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2가지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고, 연구반성을 하고자 한다.

3.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문화예술교육ODA안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방향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2012년에 제시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이하 GEFI)을 기점으로, 해당 교육의제에 제시된 세계시민교육을 이론적 근거로서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고찰을 시도한 이유는 세계시민교육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잠시 부상했다가 훗날 새로운 교육의제의 등장으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정 가운데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살펴보며,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문화예술교육ODA 안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의의를 발견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곽민희(2015)가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진행한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KOICA지구촌체험관의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는데 의의가 있다. 곽민희(2015)의 논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진행된 DR콩고와 우간다 국가를 주제로 한 전시인 '축복의 땅, 적도의 아프리카 전'을 통해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논문에서는 우간다의 토착문화 및 예술품과 우간다의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하는 전시물을 기반으로 14일 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성 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세계시민성 함양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논문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주제 중 '다문화' 영역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가를 주제로 한 전시인 '태평양의 보물섬'의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였다. 또한, 학습자가 개발도상국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일회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문화체험을 하는데서 벗어나 진정한 개발로 나아가기 위해서 2015개정 미술과 교과역량을 학습목표에 반영하여 개발도상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설계될 때에는 협동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인 대상자도 일정 부분 학습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이 아이들의 창작 활동을 돕는 조력자가 아닌 가족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도록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교육의 의미

(1) 세계시민교육의 발전과정

유엔(UN)과 유네스코(UNESCO)는 설립목적에 맞추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국제적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육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의제들은 '평화'에 대한 주제를 시작으로 '빈곤과 발전'의 문제와 마주하였으며,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의 주제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는 '세계시민교육'으로 결집되었다(한경구, 2017: 7).

본 장에서는 KOICA ODA교육원이 발간한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와 『국제개발협력-입문편』 및 『국제개발협력-심화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개발협력의 흐름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계시민교육이 부상하게 된 배경인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이 처한 상황을 각국의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과 재단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의 영역은 교육, 보건, 농림수산, 거버넌스, 환경, 젠더, 인권, 빈곤 등으로 다양하다(KOICA ODA교육원, 2018b). 국제사회는 국제개발협력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교육'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이의 발전을 위해 세계시민성 함양을 중요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김진희, 2017: 4에서 재인용).

국제사회는 시민들에게 국제개발협력교육(이하 개발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 Education, 이하 GCED)등과 관련된 형태의 교육을 통해 시민들로 하여금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은 국제개발협력의 흐름 안에서 영향을 받으며

그 의미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의 단계별 발전 과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교육 혹은 세계시민교육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개발협력의 시행단계는 시기별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제 2차 대전으로 폐허가 된 유럽의 16개국을 복구하기 위해 미국의 유럽부흥계획(European Recovery Program)인 마셜플랜(Marshall Plan, 1948~1951년)으로부터 국제개발협력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노력으로 1953년부터 '협력학교 프로젝트(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 이하 ASPnet)'를 통해 평화와 국제이해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엔은 1960년대를 '개발의 10년'으로 규정하였고, 큰 규모의 산업 프로젝트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협력을 시행하였다. 1961년에는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가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유엔은 개발에 중점을 둔 여러 전문기구들을 만들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국제개발협력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그 목적과 필요성을 알리며 시민들의 지원금을 받는 형태로 국제개발협력교육이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당시 해외로 자원봉사를 다녀온 봉사자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Oil shock)과 식량위기로 인간의 기본적 욕구(Basic Human Needs, BHN)에 초점을 둔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졌다. 유엔은 1970년대를 '제 2차 개발의 10년'으로 규정하였다. 이 시기에는 Oxfam(옥스팜)과 케어(Care)등의 구호 전문 기구들을 중심으로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이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한 경제개발이 지원되었고, 환경과 여성을 주제로 한 회의가 최초로 개최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는 일정한 예산으로

학교교육을 지원하였지만 비정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는 동서냉전의 종식 이후 동유럽 국가들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하였고, 국제개발협력의 지형에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지속되어온 대외원조가 개발도상국에 대해 불리하게 작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발도상국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94년에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을 발표하여, 공여국 중심의 개발이 아닌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맞추어 현지 주민들이 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발표하여 개발도상국 주민들이 투명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치구조가 모색되었다. 또한, 개발협력의 이슈는 환경·여성·이주·노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교육 분야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중요한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국제사회에서는 정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교육적 지원이 강조되었다(한경구, 2017:7). 유네스코는 1990년 태국 좀티엔에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선언(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을 채택하여 세계교육포럼(World Education Forum, 이하 WEF)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의제가 채택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문맹 퇴치와 초등 기초교육의 보편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개발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의 증가로 개발교육이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입되었고, 개발교육협회(Development Education Association, 이하 DEA)가 출범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 유네스코는 세계교육포럼의 두 번째 행사에서 '다카르행동강령(Dakar Framework for Action)'을 채택한다. 이는 앞서 '모두를 위한 교육 세계 선언'에서 설정하였던 목표의 성과를 평가하며 목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00년 9월 유엔은 새천년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에 기반을 둔 '새천년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최초로 글로벌 공동 목표인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채택하였는데, 교육관련 목표로는 2번-보편적 초등교육 제공과 목표 3번-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권인 향상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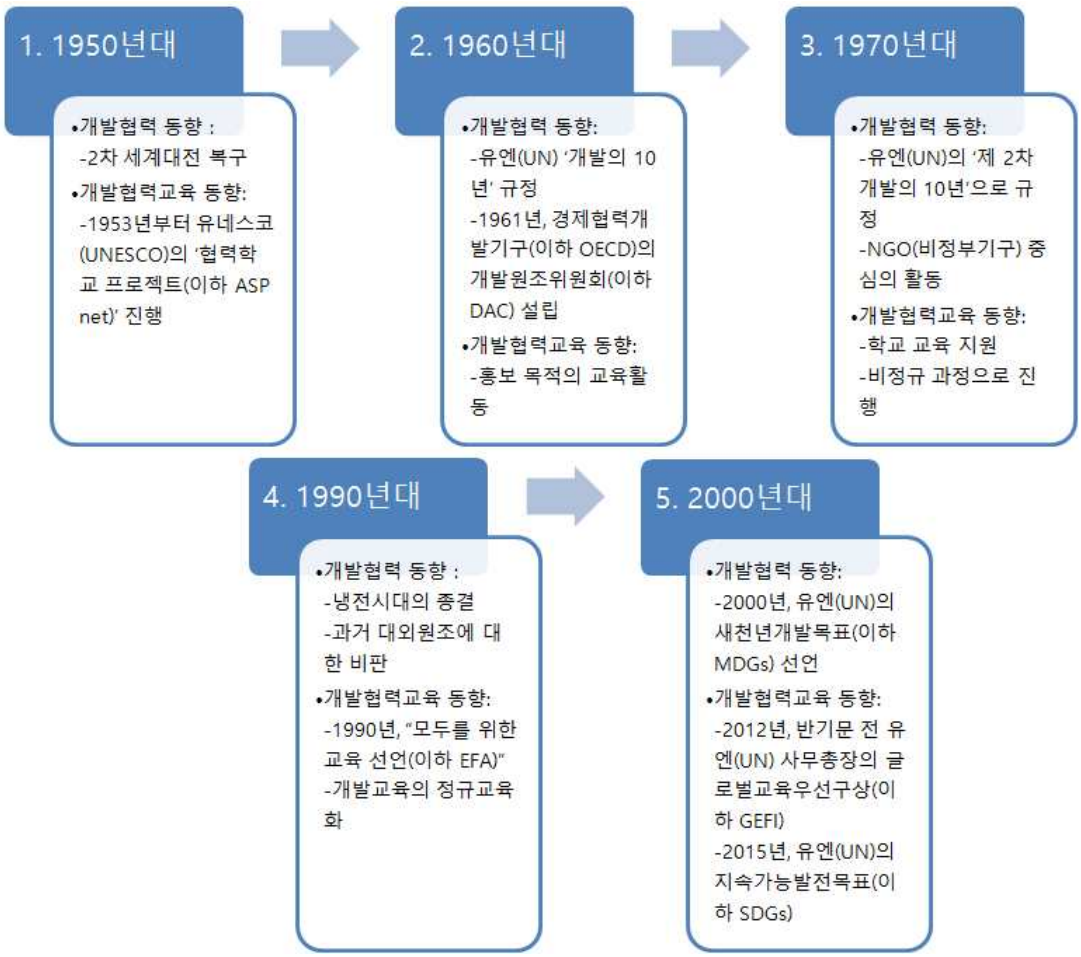
2012년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이하 GEFI)'을 출범하였다.[2] 글로벌교육우선구상에는 과거 개발도상국에게 집중되었던 교육을 전 세계로 확장하여 선진국에서도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한경구, 2017:20). 글로벌교육우선구상에는 3가지의 목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그 중 세 번째 목표에는 '세계시민의식 함양(Foster Global Citizenship)'이 제시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을 통해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핵심 역량 등을 갖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015년도에는 유네스코가 전개한 세계교육포럼 중에서 세 번째로 진행된 국제행사인 '인천선언(Incheon Declaration)'[3]에서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이 주요 의제로 제안되었다. 2015년 9월에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제70차 유엔 총회 및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된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1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지켜야 할 목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17가지의 주요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그중 교육관련 목표는 4번이며, 세부목표 4.7에서 세계시민의식(Global Citizenship)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2016년에는 유엔공보국의 주최로 아시아 최초로 경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유엔 NGO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렇게 국제개발협력은 국제사회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발이슈를 다루었고, 2000년대부터는 세계시민교육으로 집결되었다. 이의 과정을 다음의 [그림 1]을 통해 도식화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

2)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은 여러 국제기구가 협력하여 고위운영위원회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국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14년에 지원국 그룹의 멤버로 가입하였다.

3) 인천선언은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유엔(UN) 회원국들이 미래 교육목표와 이를 위한 실행계획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림 1] 국제개발협력과정에서의 세계시민교육 단계별 발전과정(KOICA ODA교육원, 2018a와 2018b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1]은 단계별 과정에 따라 5가지로 나타냈으며, 각 단계별로 개발협력 동향과 개발협력교육 동향을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이렇게 국제개발협력교육은 기존에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었던 교육적 지원을 전 세계로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세계시민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의제들이 결집되면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가. 세계시민교육의 목표 및 내용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교육목표 4번(양질의 교육, Quality Education)은[4] '교육 2030(Education 2030) 의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교육 2030에서는 교육의 양적인 확산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교육의 질적인 확산도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고(김진희, 2017에서 재인용),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의 지속성이 논의에 포함되어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b: 29).

교육목표 4번은 국제사회의 '모든 사람(For all)'을 대상으로 하고, 과거 개발도상국의 소수 계층에게만 주어진 개발의 범위를 확대하여 '포용적이고 공평한(Inclusive and equitable)' 정신을 반영하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성인을 아우르는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의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을 추구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b: 30). 이의 특징이 반영된 세부목표 4.7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제시되고 있다. 4.7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습득을 보장한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7).

세부목표 4.7에서는 세계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으로 대변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인권, 성평등, 평화,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의 측정이 어려운 영역들을 다루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a: 126). 하지만 범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4) 지속가능개발목표 4번은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목표(4.1-4.7)와 이행수단(4.a, 4.b, 4c)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 28)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세부목표 4.7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유네스코는 교육 2030의 의제를 이행하는 주도 기관으로서 목표이행에 관여하는 여러 기관들을 모니터링하며 협력하고 있다[5](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7). 계속해서 유네스코가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구성요소 및 핵심개념의 영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더 포용적이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이다(APCEIU, 2015).

유네스코는 학습자들이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글로벌이슈에 대한 지식과 기능 및 가치를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글로벌이슈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글로벌 문제와 동향에 대한 지식과 이해, 보편적 가치(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보살핌, 차별금지 등)에 대한 존중과 지식
- 비판적, 창의적 그리고 혁신적인 인지 능력,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결정과정
- 비인지적 능력 즉, 공감, 이질적 경험에 대한 수용도, 대화 능력 및 타문화 배경의 사람들과의 네트워크 능력
- 능동적 참여를 위한 행동 수용 능력(김진희, 2017: 25에서 재인용)

---

5)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행기관은 정부, 시도교육청 및 학교, 교육 유관기관, 국제기구 유관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 시민사회가 있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7: 115).

세계시민교육의 구성요소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학습자가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타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과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며, 세계시민으로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유네스코는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영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인지적 영역 – 지역사회·국가·범지역·세계의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 및 사람들 간의 상호연계성·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 이해, 비판적 사고를 습득한다.
- 사회·정서적 영역 –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대 및 공감,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여 인류애를 함양한다.
- 행동적 영역 –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적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APCEIU, 2015: 16).

유네스코가 제시하고 있는 핵심개념의 영역은 세계시민교육의 실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데,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세 가지 영역에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APCEIU, 2015: 24).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은 각 핵심개념의 영역에서 학습주제를 설명하고 있다(APCEIU, 2015: 33). 인지적 영역에서는 지역·국가·세계의 체계와 구조,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연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암묵적 가정과 권력의 역학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정체성, 사람들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상호연계 방식, 차이와 다양성의 존중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동적 영역에서는 개인적·집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실천,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 참여하고 실천하기로 설명하고 있다(APCEIU, 2015: 33). 유네스코는 인지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글로벌이슈에 인권, 문해, 평등, 다문화, 국제이해, 보건 등 다양한 주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김선정 외2, 2018에서 재인용).

세계시민교육은 탈국가적 시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2015년에 개최된 세계교육포럼 이후 한국정부가 주축이 되어 세계시민교육을 확산하게 되었다(김진희, 2017: 68). 교육부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새로운 범교과로 설정하였으며,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 세계시민교육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책임 있는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최근 극단적 폭력과 인종차별, 기후변화와 난민문제 등 지구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교육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김선정 외 2, 2018에서 재인용).

교육부는 학교교육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교육부 인정교과서인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을 발간하였고, 2019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과 『중학교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및 『고등학교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은 한국의 교육현장과 정책을 반영하여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세계시민교육의 보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6]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과의 연관성

국가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어 교육에 대한

6)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영역, 학습 성과, 학습자 특성, 학습주제, 학습목표, 핵심어, 학습 매트릭스가 제시되어 있다(APCEIU, 2015).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세계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한경구, 2017). 이는 세계시민교육과 기존에 논의된 교육의제 간에 개념적 구분이 이루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세부목표4.7에 제시된 개념들은 사실 1974년에 유네스코가 채택한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7]에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a: 126).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에 논의된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과 개념적인 근접성이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에 논의된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과 개념적 유사성이 있지만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먼저 국제이해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네스코는 국제이해교육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국제이해교육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나라와 민족, 문화와 생활습관 등을 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세계를 일구어내는, 세계시민의 의식과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강순원, 2014: 9에서 재인용).

국제이해교육은 '문화 간 이해(문화다양성) · 세계화 · 지속가능발전 · 인권 · 평화'의 다섯 가지 주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한경구, 2017: 31). 하지만 국제이해교육은 국가에 따라,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 명확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김선정 외2, 2018: 138에서 재인용).

유네스코 국제이해교육원(2015)에 따르면, 국제이해교육은 다섯 가지 주제 영역을 통해 글로벌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국제개발협력의 변천과정 속에서 국제이해교육이 세계시민교육으로

---

7) 1974 국제이해교육 권고는 1974년 유네스코 18차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정식 명칭은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이다(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a: 126).

발전하여 교육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선정 외2, 2018: 138에서 재인용). 학계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국제이해교육(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이하 EIU)[8]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강순원, 2014; 이태주, 2014; 한경구, 2017). 강순원(2014)은 국제이해교육은 1990년대 이후 다문화·인권·세계시민교육 등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고, 2015년대 이후 비판적 세계시민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김선정 외2, 2018: 138에서 재인용). 그동안 국제이해교육은 정치·외교적인 관점에서 언급되어왔고, 타국가의 음식, 댄스 등의 피상적인 영역에서 문화체험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이해교육과 달리 '시민'의 개념을 강조하며, 국제이해교육이 갖는 비판과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한경구, 2017: 31).

특히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제이해교육보다도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의 개념을 혼용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세계시민교육과 달리 유엔과 유네스코의 국제적 교육의제로 등장한 것은 아니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민국가에서 주류집단과 소수집단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소수집단을 위한 평등교육으로 시작되었다(한경구, 2017). 다문화교육학자로 유명한 뱅크스(Banks, 2009)는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과 원주민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단순히 인종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종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배움으로써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았다(손기인, 2010에서 재인용).

다문화교육의 주요학자들인 뱅크스(Banks)와 베넷(Bennett) 및 스튜어(Stuhr)는 공통적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을 성·인종·민족·평등·문화·차별 및 편견 감소·소통을 핵심가치로 제시하였다(박순덕 외 1, 2012에서 재인용). 다문화교육은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데, 공통적으로 한 국가에서 인종, 민족 등의 갈등 상황에서 개인과 집단이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으로 이해되며, 사회변화를 위한 개혁적 민주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9]으로 이해되기도 한다(김진희, 2017: 68).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은 다른 목적을 갖고 발생하였지만,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동일하고 교수학습방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그 개념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것이 사실이다. 두 교육은 모두 학습자 중심주의 교수법(learner centered pedagogy)과 평등주의 교수법(equity pedagogy)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과 활동을 중시하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민주시민을 키우기 위한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전개되는 교수방법을 공유하고 있다(김진희, 2017: 67).

다문화 미술교육 역시 다문화교육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였는데, 대표적인 다문화 미술교육학자인 맥피(McFee)는 다문화 미술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박순덕 외 1, 2012). 맥피에 의하면 다문화 미술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개개인의 특징과 경험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목표로는 첫째,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미술작품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바라보도록 하며,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함양한다. 둘째, 미술작품을 통해 자문화와 타 문화를 비교하며 문화와 미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셋째, 교육을 통해 타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기른다. 교육내용으로는 첫째, 미술교육에 다양한 계층의 문화와 미술작품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1960년대 이후 환경문제가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디자인 분야를 다문화 미술교육의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 셋째, 대중매체가 사회에 중요한 변화로 자리 잡으면서 시각 리터러시를 다문화 미술교육의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

다문화 미술교육 역시 다문화교육의 핵심가치와 교수학습방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세계시민교육과의 관련성이 높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교수학습방법에서 다문화 미술교육은 학습자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개개인에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는 데

9) 민주시민교육은 국민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원리 및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여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한경구, 2017).

반해,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특성을 갖고 있는 학습자를 대상하고 있다. 교육목표에서는 다문화 미술교육과 세계시민 예술교육 모두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비판적 사고 함양)과 사회·정서적 영역(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나아가 학습자의 행동적 영역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육내용에서는 다문화 미술교육이 성·인종·민족·평등·문화·차별·소통 등의 핵심가치를 갖고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작품을 다루고 있으며, 1960년대 이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환경 디자인 분야와 대중문화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개발협력의 영역 안에서 범지구적인 문제를 학습주제로 다루며 다문화 미술교육의 학습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시민교육과 개념적 유사성이 있는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세계시민교육의 범주가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세계시민교육과 다문화교육이 결합된 형태로 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국제이해교육'이 강조된 형태로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되거나 '다문화교육'이 강조된 형태로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단일한 개념을 갖고 교육을 진행할 때는 각 교육의 목적에 맞추어 개념들 간의 내용을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 KOICA지구촌체험관의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 및 내용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진행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공통적인 목표와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있지만 공적개발원조의 관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KOICA[10]는 세계시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

10)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991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외무상협력 사업 전담 기관으로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https://www.koica.go.kr/).

세계시민은

· 지구촌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는 상호의존성에 대해 이해합니다.
· 빈곤, 불평등, 교육, 사회정의, 물과 식량 부족, 재난, 갈등, 평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합니다.
· 지구촌 문제를 비판적 사고를 통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와 책임감을 가집니다.
· 편견 없는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KOICA ODA교육원, 2013).

KOICA에 따르면, 세계시민은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세계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KOICA는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고 있다.

> ‘나’가 아닌 ‘우리’로 살기위한 교육으로서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빈곤, 상호의존성, 평화, 환경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인종, 문화, 종교를 넘어 다양한 지구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목표로도 다뤄지는 교육입니다(KOICA ODA교육원, 2017).

KOICA는 국제개발협력과 개발교육[11]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학습자가 세계시민교육의 여러 주제들을 학습하고, 적극적으로 국제문제에 동참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KOICA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KOICA ODA교육원과 KOICA지구촌체험관[12]을 두고 있다. KOICA ODA교육원에서는 초·중·고 및 대학생과 일반인을 아우르는 세계시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협력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ODA 일반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는 세계시민 교육프로그램과 식문화체험이 마련되어 관람자에게 풍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에는 전시 주제를 갖고 진행되는 정기교육과 특별교육이 있으며, 전시기간 동안 수시로 진행되는 도슨트(전시설명)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13]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는 1차적으로 도슨트교육을 통해 관람자가 전시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돕고 있고, 준비된 활동지[14]를 통해

---

11) KOICA는 개발교육분야 전략으로 “개도국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기능인력양성, 둘째, 기초교육기회의 확대, 셋째, 고등교육환경개선이다(KOICA ODA교육원, 2015).

12) KOICA지구촌체험관은 강원도 영월소재의 영월지구촌체험관과 KOICA의 본부가 위치한 경기도 성남소재의 KOICA지구촌체험관이 있다.

13) 정기교육은 기간을 기준으로 전반기 교육과 후반기 교육으로 구분되며, 교육의 대상에 따라 교육이 진행된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과 세계시민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 진로체험프로그램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 교육프로그램이 각각 마련되어 있다. 이밖에 KOICA의 외국인 연수생, 초·중·고 교사, 대학생, 중도입국자, 다문화 아이들,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특별교육은 초등학교 하계, 동계 방학기간에 맞추어 약 1달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전시관에서는 여러 교육행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학부모 자문단과 청소년 도슨트 양성 교육 및 교원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14) 활동지의 내용은 전시주제에 맞추어 구성되고, 각 전시관의 주요 내용이 퀴즈 형식으로 구성되어 관람자가 전시관을 순회하면서 문제를 풀면서 전시 주제

관람자가 자유관람을 하면서 내용을 작성하도록 구성되어있다. 2차적으로는 전시관에서 기획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5]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는 다음의 교육목표 및 내용을 갖고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는 전시관의 오브제를 활용한 전시연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시관에는 개발도상국의 현지물품들로 구성되어 있고, 현지물품들을 활용하여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둘째, KOICA지구촌체험에서 예술교육프로그램의 학습대상자는 우리나라 국민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토요일에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대한 진정한 협력 및 지원(원조)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16]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예술교육에서는 타 문화 이해를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다. 넷째, 학습자가 예술교육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관점에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장려하고 있다. 다섯 째, 개발도상국의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의 작품을 창작할 때 학습자가 창의력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성남소재의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는 정기교육으로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정기교육으로 진행된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를 이해하도록 구성된다.

15) 기존에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는 도슨트교육과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왔다. '태평양지역 도서국가 기획展, 태평양의 보물섬'에서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과 도슨트교육이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6) 우리나라 정부의 개발협력대상국(중점협력국)은 24개국으로 아시아(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스리랑카, 네팡,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가나, 에티오피아, 모잠비크,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중동·CIS(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이 있다(www.koica.go.kr/).

[표 1]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정기교육으로 진행된 전시연계 예술교육(https://gv.koica.go.kr.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전시 명	기간	교육명	대상	전시연계교육 내용
축복의 땅 적도의 아프리카_우간다 (2014.10.21. -2015.03.31.)	2014.10.21. - 2015.03.31.	우리가족이 간다. 2015 부족 패션 Runway	가족	우간다 부족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가족의 부족 의상을 제작해본다.
실크로드 특별展 코이카와 함께하는 유라시아의 희망 (2015.05.26. -2016.02.20.)	2015.05.28. - 2015.10.12.	세상 밖으로 나온 미니아튀르(miniature, 세밀화)		우주베키스탄의 세밀화를 살펴보고,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하여 세밀화를 제작해본다.
	2015.11.02. - 2016.02.23.	전통 문화를 부탁해 - 도장 조각가 '갈리프치(galibchi)' 되기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섬유예술인 '켈라가이으(Kelaghayi)'에 대해 배우고, 조각가 갈리프치의 기법에 따라 도장을 만들어 가방을 제작해보며, 전통 계승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KOICA 25주년 특별전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KOICA로드' 展 (2016.03.31. ~2017.02.28.)	2016.03.31. - 2016.09.30.	꽃보다 난두티 -파라과이 전통공예편		컬러링 가이드북을 통해 파라과이의 전통 공예인 난두티(Nanduti)의 설화와 의미를 이해해보고, 직접 디자인해본다.
	2016.10.01. - 2017.03.18.	축제를 즐기라오 -꽃화분 막뱅 퍼레이드-		라오스의 전통 축제에 대해 알아보고, 축제에 쓰이는 꽃화분 '막뱅'을 만들어 보며,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본다.
중앙아메리카 특별展 '	2017.06.03. -	걱정은 내게 맡겨 - 과테말라		과테말라 마야인의 전통인형인 걱정인형의 설화 내

아르코 이리스(Arco Iris)' (2017.05.25. ~2018.03.10.)	2017.09.30.	마야(Maya)인의 걱정인형 만들기-		용을 살펴보고, 마야인의 지혜와 가치관을 이해해본다. 과테말라 전통직물과 부속재료를 통해 걱정인형을 만들어본다.
	2017.10.14. - 2018.02.24.	행복을 터트려요, Pinata	가족 (참여 아동: 6-13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생일과 기념일에 놀이로 활용되는 피나타(Pinata)의 역사 및 의미를 이해해본다. 풍선과 신문지를 이용해 피나타를 만들어본다.
태평양지역 도서국가 기획展, 태평양의 보물섬 (2018.05.03. ~2019.08.31.)	2018.05.19. - 2018.09.29.	나만의 바틱 문양 만들기	가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인도네시아의 바틱(Batik) 문양의 특징과 제작과정을 살펴본다. 스텐실(Stencil)기법을 통해 바틱 문양을 그려본다.
	2018.10.06. - 2019.04.30.	다마르 쿠룽 스토리텔러 되기!		인도네시아의 지역 전통 공예품인 다마르 쿠룽(Damar Kurung) 전등의 특징과 제작과정을 살펴본다. 한지와 부속재료를 이용해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전등을 제작해본다.

[표 1]은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진행하였던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전시 명, 교육프로그램 진행 기간, 교육프로그램 명, 교육 대상, 교육프로그램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14년 하반기부터 진행되었고, KOICA가 지원하며 협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다. 2014년도에는 아프리카 대륙의 우간다, 2015년도에는 유라시아 대륙의 우주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2016년도에는 파라과이와 라오스, 2017년도에는 중앙아메리카 대륙의 과테말라와 엘살바도

르 및 도미니카공화국, 2018년도에는 아시아 대륙의 인도네시아를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KOICA지구촌체험관은 공적개발원조의 관점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국제개발협력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충실하게 노력해왔다. 한편,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내용으로 삼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문화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ODA 안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ODA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ODA의 시행 원칙에 근거한 세계시민 예술교육

KOICA의 세계시민교육이 국제개발협력의 흐름 속에서 발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전시연계수업으로 진행되는 KOICA의 세계시민 예술교육 역시 문화예술교육ODA가 갖는 특징 속에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유네스코는 1960년대 개발협력과정에서 문화와 발전 간의 관계는 불가분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국제문화협력 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의 진흥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이태주, 2014). 특히 200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유네스코의 활약이 두드러졌던 때로, 국제개발협력의 담론에 문화 영역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13). 유네스코는 2001년 제 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의 발전을 본격적으로 이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정부 역시 문화다양성의 국제 의제를 정책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다.

문화다양성 선언의 조문에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사회의 문화ODA의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문화ODA와 관련된 국제협

력 조문은 문화다양성의 8가지 원칙[17]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ODA의 시행 원칙은 제 12조, 14조와 18조 사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6). 이는 다음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2] 문화다양성협약 내 문화ODA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력 조문(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7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구분	조항 내용
12조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당사국의 역할 및 촉진방안
14조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위한 당사국의 협력지원 활동
15조	개발도상국의 기반시설·인적자원·정책개발에 초점을 둔 혁신적인 협력관계 유지
16조	개발도상국 출신의 문화전문가 및 활동가를 우대하여 문화교류 촉진
17조	문화적 표현에 대한 심각한 위협 상황에서 당사국의 국제적 협력
18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분담

[표 2]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발전과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내용으로 한 국제사회의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화다양성 조문을 실천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2013년도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행한 문화예술교육ODA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ODA의 핵심내용과 시행 원칙을 살펴보고, 세계시민 예술교육과의 관련성 및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화예술교육ODA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ODA는 문화ODA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정정숙 외

17) 문화다양성 원칙은 8가지로, 첫째, 인권과 기본적 자유존중의 원칙, 둘째, 주권의 원칙, 셋째, 모든 문화의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의 원칙, 넷째,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원칙, 다섯 째, 발전의 경제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의 상호보완원칙, 여섯 째, 지속가능성의 원칙, 일곱 째, 자유로운 접근의 원칙, 여덟째, 개방성과 균형의 원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18에서 재인용).

(2013)에 따르면, 문화ODA는 공여국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문화를 존중하고, 개발도상국 주민의 정신적·정서적·문화적 표현을 지원하며, 개발도상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을 돕는 것으로 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41에서 재인용). 문화예술교육ODA는 국제사회에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에게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전파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21). 문화ODA는 2000년대에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서 문화ODA 사업액수는 다른 분야의 ODA 사업의 액수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백소연·박경철, 2015).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ODA는 사업 추진 방향 및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차원에서 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2017: 59)는 한국형 문화ODA의 개념의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문화체육관광부(2017)에 따르면, 한국 문화ODA는 지속가능개발목표에서 교육에 관한 목표 중 4.7목표를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4.7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사회로의 이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방향의 부합성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11.4목표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11.4목표에서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의 보호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의 조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2017: 59)는 3가지 목표에 맞추어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원칙’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존중성’, ‘포용성’, ‘정체성’, ‘다양성’, ‘창의성’의 순이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의 표에서 구체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 3] 한국 문화 ODA 사업 수행 시 중요한 원칙(문화체육관광부, 2017: 59)

구분	내용
존중성	수원국 주민과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포용성	소외되고 주변화된 수원국의 주민과 계층을 포섭하여 문화권 보장
정체성	수원국 주민의 정체성 형성
다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기여
창의성	수원국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표현을 장려함으로써 창의력 증진

[표 3]에서는 5자기의 원칙과 함께 해당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시민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설계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원칙에서, 존중성은 수원국 주민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적용해 봤을 경우, 교육자는 전시 대상국으로 선정된 개발도상국을 방문하거나 1, 2차 연구 자료를 갖고, 개발도상국 주민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개발도상국의 지역 문화예술품을 주제로 하며, 문화예술품이 탄생한 배경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에 근거한 내용을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둘째,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원칙에서, 포용성은 문화 ODA를 통해 소외된 영역에 있는 수원국의 주민과 계층을 포섭하여 그들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적용해 봤을 경우, 전시대상국으로 선정한 개발도상국 문화 예술품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예술품뿐만 아니라 미래에 문화 예술적으로 발굴의 가치가 있는 지역 문화 예술품을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소재로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에는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품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포함해야 하며, 의의를 설정할 수 있다. 셋째,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원칙에서, 정체성의 경우 문화ODA의 지원을 통해 수원국 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적용해 봤을 경우,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의 내용 중에서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문화를 이해하기로 학습목표를 설정하여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넷째,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원칙에서, 다양성의 경우 문화ODA 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다. 이를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적용할 경우, 자국민과 KOICA 연수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진행하여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보호에 동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지속가능개발목표 11.4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원칙에서, 창의성의 경우 문화ODA의 지원을 통해 수원국 주민이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예술표현을 통해 창의력을 증진할 수 있다. 이를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적용할 경우 타 문화의 예술작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적극적인 미술 표현 활동을 장려하고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문화ODA에 뿌리를 두고 예술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유형으로 문화ODA가 이루어질 경우엔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간의 공통점 외에 차이점도 발생하게 된다. 이는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8]

[표 4]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간의 비교 항목 기준 분류

구분	항목 기준
공통점	교육의 형태
	교육지원의 형태
	교육기관
	교육에 필요한 도구 및 재료
차이점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기간

18) [표 4]에서 항목을 분류하는 기준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료인 중 2014년, 2016년, 2017년의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교안을 토대로 하여 기준을 마련하였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

[표 4]에 따르면, 먼저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간의 공통점 중에서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의 형태에서는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모두 인도적 차원에서 도움이 필요한 개발도상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하며 문화예술교육을 매개로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교육지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모두 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매개자 교육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획하는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교육기관에서는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모두 학교 및 지역기관 등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교육 재료는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교육 주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되지만, 기본적으로 예술 활동에 필요한 예술도구(미술도구, 영상, 사진 등)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ODA와 세계시민 예술교육 간의 차이점 중 교육대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대상은 문화예술교육ODA의 경우 ODA 사업 선정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한국인 또는 KOICA에 연수과정에 참여하는 개발도상국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ODA는 수원국 국민 중 소외지역에 포함되는 학생들과 수원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반면,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유아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령층과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교육내용은 문화예술교육ODA의 경우 수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전파하거나 수원국의 상황에 맞추어 수원국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진다. 반면,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경우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에 앞서 개발도상국의 문화예술을 교육내용으로 선정하여 자국민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문화를 홍보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역은 문화예술교육ODA

의 경우 중장기 계획목표에 따라 개발도상국 내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ODA를 지원하게 되며,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경우 한국에 있는 기관을 거점으로 하여 교육이 진행된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예술교육ODA는 지속가능개발목표 4.7번과 4.11번을 근거로 두면서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을 전파하여 국제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KOICA지구촌체험관은 한국 문화 ODA 사업 수행 시 중요한 원칙의 '존중성, 포용성, 다양성, 창의성'의 관점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진행해왔다. 하지만 '정체성'의 관점도 함께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학습목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 중 '미술 문화 이해 능력'과도 맞닿아 있는데, 자문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타 문화에 대한 이해로 학습자의 경험을 확장하여 학습자가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교육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시민들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시민 예술교육 역시 문화예술교육ODA의 시행 원칙에 근거를 두고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문화예술교육ODA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홍보 역할 내지 인식 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단순히 문화예술교육ODA에 포함되는 하위영역으로 바라본다면,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좁히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문화예술교육ODA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필요성

(1)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

본 장에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미술과 안에서 진행된 세계시민교육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이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연구로써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RISS에서 검색한 KCI 등재 국내 학술지 및 논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RISS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세계시민교육의 이론적 논의부터 형식적(formal)교육, 비형식적(non-formal) 교육에 적용된 논문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글로벌교육우선구상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3대 우선 과제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미술교육에서 진행된 세계시민교육 연구는 2011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술과 교육과정 안에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는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의 경우,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대상자의 연령대가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이었기 때문에, 학령기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시민교육의 연구는 포함하지 않았다. 먼저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강문지(2018), 권희연, (2017), 김지선(2014), 서윤진(2011), 이서연(2015), 최은지(2019)가 있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곽민희(2015), 김근영(2018), 나희연(2016), 도성제(2015), 현민정(2017)이 있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김지연(2019), 김형숙(2018)이 있었다. 연령의 구분을 두지 않았던 연구에는 최은영 외4(2017)이 있었고, 이밖에 문헌연구로 진행된 연구에는 정연희(2011), 이지연(2008)이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경우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연구 대상자에서 주목할 연구에는 김형숙(2018)의 학술지논문이

있었다. 논문은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세 가지 역량(융합, 예술, 사회)을 내용으로 하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예술 후속 세대의 양성을 위한 연구로써 의의가 있었다. 또 다른 연구로는 김지연(2019)의 석사학위논문이 있었다. 논문은 우리나라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술작가 6명을 선정하여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정체성을 내용으로 하는 미술교수학습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이는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 단계에 있어 실제적으로 작가를 섭외하고, 내용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다음은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중 '지속가능발전 또는 환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던 연구가 대다수였는데, 연구에는 김근영(2018), 김지선, (2014), 나희연(2016), 도성제(2015), 서윤진(2011), 정연희(2011), 이서연(2015), 현민정(2017)이 있었다.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한 연구에는 곽민희(2015), 권희연(2017)이 있었다. 그 중 곽민희(2015)의 석사학위논문은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한 장소와 동일한 기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질적연구를 활용한 연구가 대다수였다. 연구에는 강문지(2018), 곽민희(2015), 김근영(2018), 김지선(2014), 김지연(2019), 나희연(2016), 도성제(2015), 서윤진(2011), 이서연, (2015), 현민정(2017)이 있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련이 있었던 선행연구에는 곽민희(2015), 김지연(2019), 서윤진(2011), 이서연(2015)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행연구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음의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방법론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설정한 본 연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개발협력의 발전과정과 문화예술교육ODA 사업의 수행 원칙에 근거하여 이론적 배경을 고찰함으로써,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미술과 교육과정 안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 점에서 중요하다.

(2) 전시 연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안에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담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미술 교과의 경우 교과목 특성상 미술관·박물관 등의 교육기관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에 도달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 이는 미술관·박물관교육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실제적 오브제'를 활용하여 관람자에게 깊이 있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이다(김형숙, 2000: 229, 230).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술관·박물관의 경우 실제적 오브제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관람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미술활동은 사물의 형태를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도식적 지식(schematic knowledge)을 활용하고, 표현과정에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활용하게 되면서, 학습자는 미술활동을 통해 세상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박남정, 2016: 134), 비언어적 노작 표현활동을 통해 감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박남정, 2016: 137). 세계시민교육은 정해진 교안이 반복되어 진행되는 교육의 형태가 아닌 열린교육으로 진행돼야 하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는 데 있다(유네스코, 2017). 이러한 태도에는 미술교육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식되어 온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현하도록 돕는 미술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본 장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 미술관에서 미술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 주제를 다룬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19] 이를 다음의 표로 나타내고자 한다.

---

19) 국내 미술관에서 진행된 사례는 범지구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실험적인 미술활동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학습자의 행동적 영역을 장려하여 진행되었던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표 5]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하는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20]

구분	기관명	기간	교육명 및 교육 대상	교육프로그램 내용
1	경기미술관	2018.12.04.-2018.12.14.	교육명: G뮤지엄 스쿨 수험생 프로그램 - 미술로 세계를 만나다 대상: 수험생	교육은 지구온난화, 자연환경, 문화다양성 등을 주제로 한 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이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본다.
2	경기미술관	2017.12.15.-2018.03.25.	교육명: 이면 탐구자 전시연계 프로그램 대상: 전 연령	교육은 삶과 죽음, 도시풍경, 개인과 공동체 등을 주제로 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영역을 탐구해본다. 구글 어스프로그램과 대척적 개념을 활용하여 지구 반대편의 모습을 살펴본다.
3	현대어린이책미술관	2018.11.24.-2019.02.09.	교육명: 우리가 빚내는 세상 대상: 초1-2학년	교육은 그림책을 통해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본다. 협동활동으로 구슬 작품을 모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에게 희망을 전해본다.
4	현대어린이책미술관	2018.11.24.-2019.02.10.	교육명: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대상: 6-7세	교육은 그림책을 통해 생활 속 재료로 나만의 생명체를 만들어보고, 세계의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윤리의식을 기른다.
5	현대어린이책미술관	2018.12.16.	교육명: MOKA	교육은 유엔의 지속가능

20) 출처: 경기미술관 gmoma.ggcf.kr, 현대어린이책미술관 www.hmoka.org/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저널리스트 대상: 초3-6학년	개발목표와 관련된 5가지의 주제를 통해 세계시민의 자질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를 갖고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영상으로 표현해본다.

[표 5]의 내용에 따라 2곳에서 진행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경기미술관에서 진행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주제(지구온난화, 문화다양성)를 내용으로 하는 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통해 학습자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범지구적인 이슈를 작품의 주제로 다루는 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실험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둘째,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동화책을 매개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미술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지구촌의 모습을 이해하고, 실천적인 자세로 윤리의식을 기르도록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는 동화책을 매개로 실험적인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였고,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행동적 영역을 장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3) 미술교과서 내 국제개발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

2015 개정 교육과정 핵심역량에서 설정된 미술 교과 역량에서는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융합능력, 미적 감수성, 미술 문화 이해 능력, 자기 주도적 미술학습 능력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미적 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와 관련이 있다. 교육부가 제시하는 미적 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적 감수성은 다양한 대상 및 현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미적 경험에 반응하면서 미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능력이다(교육부, 2015: 3).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 우리 미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다(교육부, 2015: 4).

미적감수성은 지구촌 이슈에 대해 학습하며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품으로 표현하면서 미적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다.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지구촌 이슈를 살펴보며 타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세계시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역이다.

박소영 외(2015)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심미적 감성 역량과 공동체 역량이 모두 부분적으로 미적 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에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박남정, 2016: 132-133에서 재인용). 이를 통해 미술 교과 역량 중 미적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은 공통점이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함께 달성될 수 있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미술과에서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주제로 삼고자 할 때, 미적 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공동으로 하여 학습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다른 교과 역량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현행 검·인정 미술교과서 중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담은 초·중·고 미술교과서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검·인정 미술교과서 초등 13권, 중등 24권, 고등 16권을 살펴보았고, 그중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총 13종을 살펴볼 수 있었다.[21] 초등학교

21) 연구자가 검토한 초·중·고 검·인정 미술교과서는 총 47종으로 종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은 금성출판사3(3~4학년군), 금성출판사4(3~4학년군), 금성출

과정에서는 2종(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미술3과 동 출판사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미술6)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2종(리베르스쿨에서 발간한 중학교 미술1, 아침나라에서 발간한 중학교 미술1)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9종(교학도서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 미래엔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 비상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 와이비엠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과 동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창작, 씨마스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과 동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 감상과 비평, 지학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6] 미술교과서 내 세계시민내용

구분	출판사	과정 구분	단원명	교과역량 또는 내용체계	세계시민 교육 주제	예술작품 활용 여부
1	금성출판	초등	대단원: 미술과 친해	교과역량:	환경	작품 수: 4

판사5(5~6학년군), 금성출판사6(5~6학년군), 동아출판사3(3~4학년군), 동아출판사4(3~4학년군), 동아출판사5(5~6학년군), 비상4(3~4학년군), 지학사4(3~4학년군), 천재교과서4(3~4학년군), 천재교육4(3~4학년군), 천재교육5(5~6학년군), 천재교육6(5~6학년군)으로 총 13권을 살펴보았다.

중등은 교학도서(미술1), 금성출판사(미술1), 금성출판사(미술2), 다락원(미술1), 다락원(미술2), 동아출판(미술1), 동아출판(미술2), 리베르스쿨(미술1), 리베르스쿨(미술2), 미래엔(미술1), 미래엔(미술2), 미진사(미술1), 미진사(미술2), 비상(미술1), 씨마스(미술1), 씨마스(미술2), 아침나라(미술1), 아침나라(미술2), 지학사(미술1), 지학사(미술2), 천재교과서(미술1), 천재교과서(미술2), 해냄에듀(미술1), 해냄에듀(미술2)으로 총 24권을 살펴보았다.

고등은 교학도서(미술), 금성출판사(미술), 미진사(미술), 미진사(미술창작), 미래엔(미술), 비상교육(미술), 씨마스(고등학교 미술), 씨마스(미술감상과 비평), 씨마스(미술창작), 와이비엠(미술), 와이비엠(미술창작), 지학사(미술), 천재교과서(미술), 천재교과서(미술감상과 비평), 해냄에듀(미술), 해냄에듀(미술창작)으로 총 16권을 살펴보았다.

	사	3	져요 중단원: 버려진 것들의 변신	창의·융합능력, 자기주도적 미술학습능력		작품 장르: 정크아트 설치작업)
2	금성출판사	초등 6 (5~6)	대단원: 무엇이 보이나요? 중단원: 지구를 구해줘!	교과역량: 시각적 소통능력, 창의·융합능력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적정기술, 환경	없음
3	리베르	중등 1	대단원: 이미지와 시각문화 중단원: 시각 문화의 착한 기능	내용체계: 체험-소통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적정기술	없음
4	아침나라	중등 1	대단원: 나와 세계 중단원: 더불어 사는 우리	-	공동체 문화다양성,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	작품 수:3 작품 장르: 디자인, 회화, 매체
5	교학도서	고등	대단원: 미술과 아름다움 중단원: 미술과 세계	내용체계: 체험, 표현, 감상	문화다양성	없음
6	금성출판사	고등	대단원: 미술과 삶 중단원: 미술, 사회와 함께하다	교과역량: 시각적 소통능력	환경	작품 수: 2 작품 장르: 매체, 조각설치
7	미래엔	고등	대단원: 사회와 세계 중단원: 사회 참여로서의 미술	교과역량: 시각적 소통능력, 미적감수성, 미술문화이해능력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	없음
8	비상 (고등학교 미술)	고등	대단원: 체험 중단원 1. 자신과 세계 2. 미술을 통한 사회참여	내용체계: 체험-지각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	작품 수: 9 작품 장르: 회화 매체, 모형 설치, 사진, 스텐실 벽화

9	씨마스 (고등학교 미술)	고등	대단원: 지각·소통·연결 중단원: 현대의 사회적 현상과 문제	-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	작품 수: 4작품 장르: 매체, 조각설치, 회화, 디자인
10	씨마스 (미술감상과 비평)	고등	대단원: 미술의 사회·문화적 맥락 중단원: 미술 작품의 사회·문화적 의의	-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적정기술,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	작품 수: 9작품 장르: 조각 설치, 제품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11	와이비엠 (미술창작)	고등	대단원: 표현 계획 중단원: 발상 - 사회적 현상과 미술	내용체계: 표현-발상	환경, 문화 다양성	작품 수: 5작품 장르: 매체, 조각설치 작업, 프린트 광고
12	와이비엠 (고등학교 미술)	고등	대단원: 체험, 내게 미술이 오다 중단원: 지각_자신과 세계	내용체계: 체험 중 지각	문화다양성	작품 수: 2작품 장르: 시, 회화 매체 프로젝트
13	지학사	고등	대단원: 체험하는 즐거움 중단원 1. 나와 세계 그리고 미술 2. 미술을 통한 사회참여	내용체계: 체험	세계의 다양한 이슈	작품 수: 8작품 장르: 영상매체, 설치매체, 조각설치, 회화

[표 6]에 따르면, 미술교과 내 세계시민교육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교과서는 총 13종이었고, 그 중에서 국제개발협력(교육, 보건, 농림수산,

거버넌스, 환경, 젠더, 인권, 빈곤)[22]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교과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과서는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3종, 씨마스에서 발간한 교과서 2종, 리베르스쿨·아침나라·미래엔·비상·와이비엠·지학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각각 1종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미술3은 '미술과 친해져요'라는 대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과서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위협받는 세계 이슈들을 소개하고, 정크아트(Junk Art)로 작품을 만든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정크아트로 만들어진 작품에는 4가지가 소개되고 있다. 먼저 빌린스키(Villinski, Paul, 미국, 1960~)의 작품 '마치 음악이 흐르는 듯 흘러가는 나비의 조각(비닐 LP레코드, 틴테이블, 철사, 244X183X40.6cm, 2009)'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진신(한국, 1971~)의 '소리 물결(나무 뼈대 위에 레코드판 설치, 234X268X158cm, 2007)'의 작품과 김태균(한국, 1984~)의 '아기 코끼리(병뚜껑, 철, 210X110X155cm, 2016)의 작품 및 천근성(한국, 1984~)의 '코뿔소(버려진 장난감, 60X135X100cm, 2013)'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초등학교 미술3에서는 정크아트로 만들어진 작가의 작품에서 사용된 재료를 알아보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초등학교 미술6에서는 '무엇이 보이나요?'의 대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단원의 핵심역량은 시각적 소통과 창의·융합이다. 다원의 도입에서는 필리핀 마닐라 빈민촌의 주민들을 위해 재활용 전등을 만들어주는 필리핀 구호 기구인 마이 쉘터 재단을 소개하고 있다. 미술활동에는 환경을 주제로 하여 이미지, 색, 글자 등을 조합하여 협동으로 브랜드 디자인을 만드는 데 있다.

리베르스쿨에서 발간한 중학교 미술1에서는 '이미지와 시각문화'의 대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생활 속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각 문화를 통해 해결하기이다. 단원의 도입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역에서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어렵게 물을 긷는

---

22) KOICA는 교육, 보건, 농림수산, 거버넌스, 환경, 젠더, 인권, 빈곤의 영역에서 국제개발협력을 진행하고 있다(KOICA ODA교육원, 2018b).

사람들을 위해 바퀴타이어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큐 드럼(Q-drum)이라는 디자인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관찰을 통해 삶을 변화시킨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개발도상국에서 사용하는 등유램프를 대신하여 천연 직물을 이용해 만든 전등인 솔라퍼프를 소개하고 있다. 미술활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낀 영역을 생각해보고, 편리한 방식으로 디자인을 개발할지 생각해보기이다.

아침나라에서 발간한 중학교 미술1에서는 '나와 세계'의 대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두 가지로, 하나는 미술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주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이다. 다른 하나는 지구촌 이슈를 다루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 미술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기이다. 단원에서는 지구촌 이슈를 다루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한국의 한 광고사가 지구촌의 동물 보호를 위해 기차의 수납칸에 동물 사진을 넣고 갇혀있는 동물을 표현한 광고가 소개되고 있다. 다음 작품은 알위 파델(Alwy Fadhel, 호주)의 '난민 미술 프로젝트 전시작(종이, 커피, 38X29cm, 2010)'으로, 작품은 이라크 망명 신청자였던 작가가 미술재료가 없던 곳에서 물과 커피만을 이용해 난민 시절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작품은 강익중(한국, 1960~)의 '집으로 가는 길(혼합재료, 10X10X10cm, 2016)'이다. 작품은 남북 분단으로 한국에 정착한 실향민들의 작품을 500장 모아 영국 런던의 템스 강에 설치한 것으로, 세계 난민 이슈를 주제로 하고 있다.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과 삶'의 대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단원은 체험영역으로 지구촌 이슈를 다루는 작가의 작품을 통해 미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다. 먼저 아제베두(Azevedo, 브라질, 1950~)의 '최소의 비석(1,000개의 얼음조각 설치, 2009)'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얼음조각을 햇빛 아래에 두어 서서히 녹는 모습을 통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작품에는 그랑종(Grangeon, 프랑스, 1953~)의 '1600 판다+세계 여행 프로젝트(철사, 종이, 가변크기, 2015)'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판다 모형을 세계 곳곳에 전시하면서, 전 세계에 멸종 위기의 동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 미술활동에서는 '사회 문제를 미술로 해결하기'로 모둠별로 지구촌 이슈를 주제로 하여 미술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이다.

미래엔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와 세계'의 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미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기이다. 미술활동에서는 지구촌 이슈를 주제로 표현 매체로 미술작품을 만들어보기이다.

비상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을 통한 사회 참여'의 중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단원에서는 '사회에 참여하는 미술'과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미술'의 세부 주제에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단원의 핵심개념은 연결이며, 학습목표는 두 가지로 하나는 현대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하는 미술 작품을 통해 미술의 기능을 이해하기이다. 다른 하나는 현대 사회 이슈를 조사하고 미술을 통해 참여 방법을 생각하기이다.

'사회에 참여하는 미술'의 도입에서는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작품이 2개 소개되고 있다. 첫째,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중국, 1957~)의 '기둥을 뒤덮은 구명조끼(혼합재료, 가변설치, 2016)'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독일의 콘체르트 하우스 기둥을 감싸고 있는 주황색 구명조끼를 통해 유럽의 난민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뱅크시(Banksy, 영국, 1974~)의 '시리아의 이민자들(스텐실, 스프레이 물감, 2015)'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애플의 창업자이며 시리아 이민자 출신인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를 프랑스에 위치한 난민촌의 벽에 그리면서, 난민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미술'에서는 세계의 환경과 평화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다루고 있다. 작품은 각각 2개씩 소개되고 있다. 먼저 환경을 주제로 한 작가로 핀리(Finlay, 미국, 1975~)의 '벽지 바른 쓰레기통(벽지, 풀, 2010)'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쓰레기통에 기하학적인 모양의 벽지를 붙여 현대 사회의 과소비에 따른 환경오염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두란(Duran, 멕시코, 1974~)의 '쓸려오다 시리즈(플라스틱, 가변설치, 2010)'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멕시코 해안으로 쓸려온 원형 플라스틱 조각을 암석 안에 배치하여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드러내고 있다. 평화와 관련된 작품은 호프만(Hoffmaan, 네덜란드, 1977~)의 '러버 덕 프로젝트(폴리염화 비닐, 사상 플랫폼, 발전기, 18X18X21m, 2014)'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초대형 사이즈의 고무 오리 인형이 전 세계로 떠다니는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와 행복을 전달하고 있다. 다음은 제이알(프랑스, 1984~)의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사진, 가변설치, 2011)'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일반인의 다양한 표정이 담긴 사진을 세계 곳곳에 설치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미술'의 평가영역에서는 미술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세계 이슈를 이해하며 개선할 방법을 생각해보기이다.

씨마스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각·소통·연결'의 대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앞서 살펴본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에 실린 그랑종(Grangeon, 프랑스, 1953~)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어서 지구촌 이슈를 주제로 한 작가 3명이 소개되고 있다. 먼저 이준(한국, 1985~)의 '방관자(합서수지, 실, 각, 4X5X24cm, 2011~2016)'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사회적 문제에 무관심한 군중을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키스해링(Haring, Keith, 미국, 1958~1990)의 '무제(아크릴, 305X366cm, 1984)'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남아프리카의 인종 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석(한국, 1982)의 '뿌린 대로 거두리라(프린트, 30X90cm, 2004)'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미지를 통해 전쟁의 피해를 나타내고 있다. 이 단원의 미술활동으로는 지구촌 이슈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정하여 표현 매체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보기이다.

씨마스에서 발간한 미술감상과 비평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의 사회·문화적 맥락'의 대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단원의 학습목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미술

작품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기이다. 다른 하나는 미술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 단원에서는 본 장에서 살펴본 다른 교과서와 달리 비교적 많은 수의 지구촌 이슈를 주제로 한 작품이 실렸다. 먼저 아이웨이웨이(艾未未, 중국, 1957~)의 작품이 단원의 도입에 소개되고 있는데, 앞서 비상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에 실린 작품과 같다.

다음으로는 파트별로 작품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파트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술'과 '모두를 위한 미술' 및 '동시대 미술의 변화를 이끄는 미술'로 구성되고 있다. 먼저 '사회를 변화시키는 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지구촌 이슈와 관련성이 높은 3개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먼저 이제석이 산림청의 행사에 참여한 '세상을 녹색으로: 제 70회 식목일 기념 조형물'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식목일 기념하여 환경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고 광화문에 설치되었다. 다음은 패러(Parer, Amanda, 오스트레일리아, 1971~)의 '습격(설치, 2016)'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토끼 조형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생태 불균형을 일으키는 토끼가 자연을 파괴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영호(한국, 1965~)의 '스퀘어-M커뮤니케이션(설치, 720X600X600cm, 2013)'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텔레비전을 나타내는 붉은색 네온 틀과 그것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손을 뻗는 형태의 조형물로 미디어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모두를 위한 미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배상민(한국, 1974~)의 '사운드 스프레이(A제품사, 2012)'가 소개되고 있다. 제품은 특정 주파수를 내보내어 말라리아모기를 퇴치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제품이다. 다음은 '차일드지번 안경(영국, B제품사, 2012)'이 소개되고 있다. 제품은 안경에 설치된 실리콘 용액을 통해 렌즈의 두께를 변화시켜 사용자에 따라 시력을 맞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저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동시대 미술의 변화를 이끄는 미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 3개가 소개되고 있다. 먼저 테일러(Tayl rlor, 영국, 1974~)의 '인류세(설치, 2011, 멕시코)'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에서는

자동차 앞 유리에 사람 모형이 기대고 있는데, 자동차를 수중에 띄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동차에 인공어초가 자라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김명범(한국, 1976~)의 '무제(나무, 풍선, 400X400X330cm, 2009)'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나무에 여러 개의 빨간 풍선을 달아서 공중에 띄워서, 자연 파괴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은 '자연보호 캠페인 포스터(세계자연기금, 2004)'가 소개되고 있다. 포스터에는 빙하에 아이스크림 막대를 결합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탐구활동으로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미술 작품을 조사하여 작품 제작 의도를 살펴보는데 있다.

와이비엠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창작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계획'의 대단원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단원은 사회의 이슈를 주제로 하여 창의적인 형태로 미술 작품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에는 김은숙(한국, 1978~)의 'Endless Ⅲ(400개 이상 전시 포스터, 혼합재료, 가변크기, 2009)'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에는 많은 쇼핑백을 나열하면서 현대의 잘못된 소비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밖에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작품 3개가 소개되고 있다. 최건아(한국, 1984~)의 '나무(채집한 나무쓰레기, 가변설치, 2009)'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환경의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가 심한 현대의 소비문화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은 이제석(한국, 1982~)의 '이 속에 들어 있는 물이라면 한 마을이 마시고도 충분합니다(옥외설치, 공익광고, 2010)'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을 통해 세계적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은 아제베두(Azevedo, 브라질, 1950~)의 작품이 소개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앞서 살펴본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에 실린 작품이다. 이 단원에서 주목할 점은 세계 이슈의 주제를 환경, 소비문화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의 개념을 소개함으로써 세계 이슈에 대한 개념의 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의 내용으로 강익중(한국, 1960~)의 '놀라운 세상(드로잉, 혼합재료, 310X250X264cm)'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의 작품을 통해 서로 다른 모습을 존중하며 지구촌이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주제의 미술활동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해 사회적 현상을 탐구하여 작품으로 표현하는 데 있다.

지학사에서 발간한 고등학교 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술'의 소주제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한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먼저 인스티튜트 포 피겨링(미국)의 '퐈르섬의 산호초(털실 손뜨개, 가변크기, 2012)'가 소개되고 있다. 작품은 손뜨개로 산호초 모양을 만들어 인간이 자연 환경에 미치는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주제의 미술활동은 '환경사랑 플래스몹(Flassh Mob)'을 통해 실제 작품을 제작해본다.

이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학습주제로 삼고 있는 미술교과서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미술교과서 특성상 세계이슈를 주제로 한 세계 여러 나라의 작품들을 통해 각 교과서마다 학습주제를 설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11종의 교과서에서는 중복으로 언급된 미술작품들이 있었다. 강익중의 작품, 그랑종의 작품,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아제베두의 작품이 중복으로 다루어졌다. 특히 아침나라와 와이비엠에서 발간한 교과서에 언급된 강익중의 두 작품인 '집으로 가는 길'과 '놀라운 세상'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되는 사회 참여적인 작품이다. 강익중 작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는 지역 주민들은 제시된 세계 이슈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구성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고 세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강익중의 작품은 세계시민 양성을 위한 미술교육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고은실, 2009: 167).

다음으로 앞서 살펴본 교과서의 세부 학습주제를 세계시민교육의 영역 중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분류하고자한다.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교과서 2종과 리베르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영역 중 환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아침나라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는 지구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고, 국제개발협력의 영역 중에서 인권, 환경, 빈곤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미래엔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영역 중 환경과 인권을 내용으로 하였고, 비상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영역 중 환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씨마스에서 발간한 교과서 2종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영역 중 환경, 인권, 보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와이비엠과 지학사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영역 중 인권과 환경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지구촌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다문화 미술교육에서 다루는 영역이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교과서 중 실질적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디자인 제품들이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리베르스쿨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는 큐 드럼(Q-drum)과 솔라퍼프를 소개하고 있고, 씨마스에서 발간한 교과서에서는 사운드 스프레이와 차일드지번 안경을 소개하고 있다. 각 제품들은 개발도상국의 식수문제, 친환경적인 전구, 말라리아 모기 퇴치, 저비용 맞춤 안경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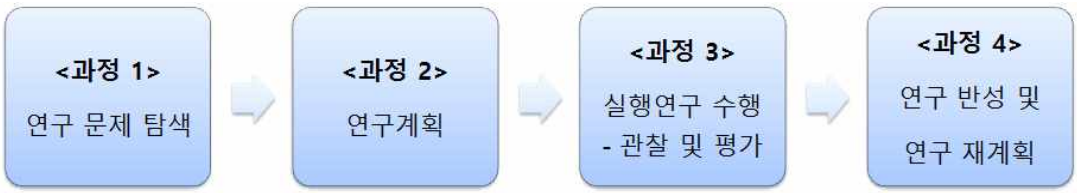
이렇게 세계시민교육을 주제로 학습주제로 담고 있는 미술교과서에서는 세계 이슈를 주제로 한 작품들을 통해 학습자가 세계시민성을 함양하도록 돕고 있으며, 학습주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월등히 많이 다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를 통해 연구를 설계하였다. 카와 케미스(Carr&Kemmis, 1986)는 '비판적(Critical) 실행연구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 모형은 주기(Cycle)에 따라 설계되고 있다. 먼저 1주기에서는 연구의 문제를 파악하고, 연구를 계획하여 관찰 및 평가를 한 다음 반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으로 2주기에서는 1주기에서 발견된 문제를 통해 연구를 재계획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를 실행하여 관찰 및 평가를 한 다음 반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반복되어 연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1주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1주기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미흡하였던 상황을 정리하여 연구 2주기로 나아가기 위한 사항을 재계획하고자 한다. 연구과정을 그림을 통해 정리하였다.



[그림 2] 실행연구 과정(김명희, 2015: 180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2]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절차를 정리하였다. 연구 과정 1단계에서는 연구자가 근무하였던 교육환경의 문제를 파악하였다. 연구자는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할 때, 학습자의 개발도상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ODA의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하며, 2015 개정 미술과 교과역량을 반영하여 교육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을 발견하였다.

연구 과정 2단계에서는 연구 과정 1단계에 파악되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고,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 과정 3단계에서는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지와 연구 일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 과정 4단계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살펴보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연구반성 및 실행 전략을 수립하였다.

2. 연구 참여 대상

KOICA지구촌체험관의 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은 6가족이며,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가 과도하게 많은 회차를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연구참여자는 최대 120명(최대30가족 참여, 1가족 당 가족 구성원이 4명인 경우, 30가족 x4명=120명)으로 선정하였다. 중도탈락자(약 20-30%)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목표 연구참여자의 수를 계산하여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 선발은 세계시민 예술교육 가족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가족 중 초등생 이상의 자녀부터 중학생 자녀를 가진 가족에 한해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중 참여하는 자녀의 연령대는 다음에 근거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세계시민성의 함양을 위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추가되었다. 하지만 교육과정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교육 현장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세계시민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세계시민교육은 단일 학문이 아닌 세계의 이슈들을 주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교육이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자신을 둘러싼 외부 세계에 대한 이해로 지평을 넓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습자는 스스로 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해 갈 수 있는 단계인 아동기의 시기(이성도 외2, 2013: 123)부터 세계시민교육을 학습하는 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미술교육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진행될 경우에, 학습자는 미술도구를 활용하여 스스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자아 성찰의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로웬펠드(Viktor Lowenfeld)는 학습자의 창조적 표현 능력이 단계별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또래집단기(the gang age, 9-12세)의 학습자는 자아와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며, 미술훈련을 받지 않은 성인이 표현하는 묘사력과 유사한 형태로 대상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았다(이성도 외2, 2013: 128). 반면, 로웬펠드의 발달단계에 따르면, 유아기는 난화기(the scribbling stage, 2-4세)와 전도식기(the preschematic stage, 4-7세)로 제시되고 있다(이성도 외2, 2013에서 재인용). 난화기의 미술 표현법의 특징은 목적의식 없이 무의미한 선을 그리는 것이 특징이며, 전도식기는 자기중심적으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성도 외2, 2013: 127, 128).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보다 유아기 자녀의 안전과 편의를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등학생을 연구참여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KOICA 지구촌체험관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다. 이에 토요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 수업은 기획 단계부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으로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는 점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을 갖고 연구참여자 자녀의 연령을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연구 참여에 앞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연구일 약 2-3주 전에 연구자는 통화로 IRB 연구계획서에 의거해 작성한 '연구참여자 모집 구두 스크립트'를 통해 연구 참여 의사를 묻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연구가 진행되면 한 가족 당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각각에 요구되는 자료가 있다.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참여자의 모습을 관찰하며 연구참여자의 작품결과물을 사진으로 촬영하게 된다. 연구참여자의 경우 수업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며, 연구자가 준비한 설문지에 내용을 작성하게 된다.

본 장에서는 연구자료 중 설문지의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지의 분석방법은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에듀케이터 1명과 미술교사 1명,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담당자 1명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진행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설문지 2번 문항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설문지 2번 문항의 답변 내용은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표에서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 및 행동적 영역의 내용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학습성과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7]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APCEIU, 2015)

	인지적영역	사회·정서적영역	행동적영역
학습성과	학습자는 지역·국가·세계의 이슈 및 다양한 국가와 사람들의 상호연계성과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한다.	① 학습자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경험한다. ② 학습자는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① 학습자는 더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해 지역·국가·세계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있게 행동한다. ② 학습자는 필요

		존중 및 공감, 연대의 태도를 익힌다.	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동기와 의지를 기른다.

[표 7]에 의거하여 연구참여자의 설문답변 내용 중 해당 내용이 인지적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 성과의 도달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설문답변 내용 중 해당 내용이 사회·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학습 성과의 도달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 중 연구자는 '사회·정서적 영역'의 첫 번째 부분에서 '학습자는 인권에 기반을 둔 가치와 책임을 공유하며 보편적 인류라는 소속감을 경험한다.'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인권'은 보통 정치적 맥락에서 이해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었다. 이에 세계인권선언문 제 27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근거로 인권의 의미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세계인권선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인권선언문 제 27조)[23]

APCEIU(2015)는 사회·정서적 영역을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능'과 정서적 영역에 해당하는 '가치와 태도'로 분류해서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가치는 사람의 신념으로 이해되며, 태도

23) 출처: 유엔, www.un.org/

는 신념에 기반한 행동방식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기능의 경우, 민주시민으로서 타인의 감정과 권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뜻한다. 사회·정서적 영역과 관련이 있는 연구참여자의 설문답변 내용은 [표 7]에 따라 ①번과 ②번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의 설문답변 내용 중 해당내용이 행동적 영역인 경우, 연구참여자의 '실천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의 설문답변 내용 중 해당 내용이 행동적 영역에 포함될 경우,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학습성과의 도달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8] 2차-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기준표

학습성과 영역	학습성과 확인
인지적 영역	설문지 내용에 기입한 학습자의 지식 내용 확인
사회·정서적 영역	설문지 내용에 따라 ①, ②으로 분류
행동적 영역	설문지 내용에 기입한 학습자의 실천적 행위 확인

이렇게 연구참여자의 설문답변 내용을 '2차-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기준표'에 따라 학습 성과의 도달 여부를 살펴보았다.

Ⅳ. 전시관 연계수업을 통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적용 : KOICA지구촌체험관을 중심으로

1. 교육프로그램 개발

(1) 연구배경

-KOICA지구촌체험관의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기획展' 소개[24]

본 연구는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2018년 5월 3일부터 진행되는 전시인 '태평양 지역 도서국가 기획展'의 연계수업을 연구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25] 이번 전시는 KOICA가 지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 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가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었다. 전시 공간은 3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각 글로벌시민관, 문화전시관 및 KOICA혁신관의 이

24) https://gv.koica.go.kr/ 에서 연구자가 재구성

25) KOICA지구촌체험관은 2010년 개관하여 KOICA가 지원하는 개발도상국을 전시의 주제로 삼아 전시를 기획하고,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및 식문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2010년에는 '몽골'과 '아프리카', 2011년에는 '남미'와 '캄보디아', 2012년에는 '베트남'과 '북아프리카', 2013년에는 '남아시아'와 '중앙아프리카', 2015년에는 '중앙아시아', 2016년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017년에는 '중앙아메리카'를 전시 주제로 하여 기획전시를 진행하였다(KOICA지구촌체험관 전시 리플릿, 2018).

름으로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다. 전시관에서는 전시내용을 설명하는 문구와 작품이 배치되어 있고, 체험도구를 통해 관람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된 전시관과 함께 별도로 열린도서관과 ODA배움터라는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열린도서관에는 개발도상국의 동화책 및 관련 서적들이 있고, ODA배움터에는 우리나라 ODA역사와 사업형태 및 사업분야가 소개되고 있는 공간이다.

글로벌시민관에서는 유엔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겪고 있는 식량난과 빈곤 및 인권 문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둘러싼 글로벌 이슈인 태평양의 쓰레기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작품으로 만든 '신(新)십장생'을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시민관의 후반부에는 KOICA에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 농림수산, 에너지, 기후환경변화 대응의 중점분야를 주제로 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문화전시관에서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소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자연환경, 지역축제 및 가면극, 전통가옥, 전통의상, 인형극, 전통미술 및 음악 등을 소개하고 있다. 그중 전통 의상과 전통 놀이 및 악기는 관람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KOICA혁신관에서는 ODA의 개념 및 특징과 우리나라 ODA의 역사가 있다. 또한, KOICA 기관에 대한 소개와 KOICA의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이하 CTS)[26]을 소개하고 있다. KOICA혁신관에는 개발도상국의 보건과 의료 및 교육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CTS 기술 제품들이 마련되어 있고, 관람자가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다.

---

26) CTS는 KOICA의 10대 중점분야인 교육, 보건, 공공행정, 농촌개발, 물, 교통, 에너지, 성 평등,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 혁신을 주제로 한 사업이다. CTS 프로그램은 2015년도에 신설되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6개 개발도상국에 33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http://koica-cts.com/).

-교육프로그램 주제 선정 과정

본 교육프로그램 명은 '다마르 쿠룽(Damar Kurung) 스토리텔러 되기!'로 하반기 정기교육으로 2018년 10월 6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27] 본 교육프로그램은 기존에 진행되어온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되, '한국 문화 ODA사업 수행 시 중요한 원칙' 중 네 가지 관점을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고,[28]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 중 '미적 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의 내용을 토대로 학습목표를 구성하고자 한다. 교수학습지도안은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에듀케이터 1명과 미술교사 1명, 그리고 세계시민교육 담당자 1명의 자문 및 검토를 받아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존중성과 포용성'의 관점을 적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존중성과 포용성은 문화ODA를 통해 수원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소외된 문화권에 있는 수원국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 본 연구의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전시대상국가인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중에서 전반기 예술교육프로그램과 동일한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선정하였다.[29] 인도네시아의 문화 중에서 예술 공예품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형

---

27) 상반기 정기교육은 2018년 5월 19일부터 2018년 9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인도네시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된 바틱(Batik) 공예품을 주제로 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바틱의 문양이 새겨진 스텐실(stancil) 도안을 활용하여, 원형 판넬(panel)과 사각형 판넬 위에 문양을 새겨보는 수업이었다.

28) '한국 문화ODA 사업 수행 시 원칙'의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다양성'의 원칙은 교육의 대상자 범위와 관련이 있었는데, 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 내용 구상에서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29) 후반기 정기교육은 전반기에 진행되었던 예술교육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국가로 선정하였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기 교육에 참여했던 관람자들의 대부분이 후반기 교육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연관성을 갖고 관람자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에 전반기 교육은 기본과정의 수준에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고, 후반기 교육은 심화과정의 수준에서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둘째, 특별교육으로 진행되는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세계시민 교

성하고 있는 다마르 쿠룽 연등을 교육의 주제로 살펴보았다.[30] 다마르 쿠룽 연등은 인도네시아의 자바(Java)섬 동쪽에 위치한 Gresik이라는 해안지역에서 발생되었다(Aniendya Christianna, 2018).

[그림 3] 인도네시아 다마르 쿠룽 연등

다마르 쿠룽 연등은 연등을 제작해오던 1세대 작가인 Masmudari(1909-2015)의 작고 이후, 문화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바인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Aniendya Christianna, 2018). 다마르 쿠룽 연등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자바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이며, 우리나라와 문화적·종교적으로 유사한 배경을 지닌 문화이기 때문에 학습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KOICA가 지원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인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다음은 '정체성'의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체성의 관점은 문화ODA를 통해 수원국 주민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내용으로, 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학습목표와 연관 지어서 살펴보았다. 또한, 2015 개정 미술과 교과역량의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나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로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에서는 인도네시아 다마

육프로그램에서는 필리핀 국가를 선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후반기 정기교육으로 진행되는 예술교육은 인도네시아 국가로 선정하였다.

30) 다마르 쿠룽 연등은 KOICA지구촌체험관의 문화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르 쿠룽 연등과 유사한 문화 배경을 갖고, 종교적 특성에서 기인하였던 우리나라의 연등 문화를 함께 소개하였다. 부산에 있는 삼광사에서 거행되었던 석가탄신일(5월 22일) 연등 축제 모습과 축제에 전시되었던 연등의 사진을 각각 첨부하였다. 다마르 쿠룽 연등은 힌두 불교 시대에 등장하였고, 라마단 기간의 축제로 활용되며 지역 공동체를 중심을 형성된 문화 예술품이다(Aniendya Christianna, 2018).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부터 연등축제가 시작되었고, 불교문화를 기반으로 등불을 밝혀 괴로움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의 이동을 기원하는 공동체의 바람이 새겨진 것이 고려시대의 연등회가 대표적이다(이윤수, 2012).

둘째, 다마르 쿠룽 연등에 표현된 인물 묘사 방식과 화면 구도의 표현이 유사하였던 우리나라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풍속화 작가인 김홍도의 '씨름도'와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첨부하였다. 다마르 쿠룽 연등에는 인도네시아의 종교의식과 출산, 결혼, 세시풍속 등의 모습이 그림으로 담겨 있고, 조선후기 우리나라 풍속화에도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의 모습이 그림으로 담겨 있다.

다음은 '창의력'의 관점에서 단계별 미술 활동 과정을 설정하였다. 학습자가 작품의 주제를 선정하고 아이디어 스케치로 표현하며, 실제 작품에 반영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작품 활동에 사용하는 재료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며 진입장벽이 다소 낮은 재료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타국가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로 설정된 바,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 재료도 함께 사용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의 미술활동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자는 다마르 쿠룽 전등에 담을 내용을 활동지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여 작품 제작과정을 계획하게 된다. 이후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전등을 구성하는 몸체를 만든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다마르쿠룽 전등의 몸체는 입체적인 대나무를 이용하여 사각형을 구성하고, 대나무 틀 위에 기름종이 혹은 섬유재질을 둘러서 만들어진다.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종이인 줌치한지를 이용해 전등의 몸체를 구성하였다.[31] 줌치한지

를 교육재료로 사용한 이유는 전통적으로 전등이나 의복을 만들 때 사용되었기도 하지만, 한지의 오돌토돌한 표면에 작품을 표현할 때, 연구참여자가 촉각을 이용해 화면의 실재감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줌치 한지를 포토프레임에 양면테이프로 접착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4개를 완성한다. 준비된 종이 틀을 알맞은 크기로 펀치로 뚫어주고 마끈을 이용하여 4개의 틀로 이어준다. 4개의 포토 프레임을 이어줄 도구는 마끈으로, 끈이 갖는 '연결성'이라는 상징의 의미를 활용하여 가족의 유대관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전등은 전통적으로 천위에 수채화나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채색하여 나타내지만(Aniendya Christianna, 2018),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상 의류용 한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 채색 도구는 의류용에 적합한 페브릭 마카(Fabric Maker)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주된 재료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다마르 쿠룽 전등을 완성하고, 준비된 부재료인 꾸미기용 스티커와 장식용 나무구슬을 이용해 가족별로 장식을 하였다. 꾸미기용 스티커는 특별히 연구 참여자 가족 중 참여하는 자녀 중 형제의 연령대가 학령기 전 아이를 대상으로 준비된 것이다. 학령기 전 아이의 경우 그리기 보다는 스티커를 활용한 미술활동이 좀 더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에 추가하였다.

가. 프로그램 목표

교육프로그램의 목표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교과역량으로 제시된 '미적 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두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 문화에 대한 이해하기이다. 둘째, 타국가 예술작품의 표현과정을 이해하고, 조형요소를 통해 자신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

31) 줌치 한지: 조선시대에 물을 이용해 두 장의 한지를 붙이는 기법으로, 질기고 쉽게 찢어지지 않는 특징으로 예로부터 의복, 전등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김주연, 2009).

교육프로그램의 학습목표는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살펴보며, 타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기이다. 이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공동체 역량을 내용으로 하여 설정하게 되었다. 미술과에서는 공동체 역량을 위해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타 문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세계 공통의 문제를 살펴보며 타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능동적인 자세를 얻어야 한다. 특히 가족으로 협동작업이 진행될 때, 서로 다른 견해를 존중하며 세계 공통의 문제에 있어 대안적인 관점을 모색할 수 있다(정연희, 2010: 10에서 재인용).

둘째,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전등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특징을 알아보기이다. 이는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심미적 감성 역량을 내용으로 하여 설정하게 되었다. 미술과에서는 심미적 감성 역량을 위해 미적 감수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술작품의 내재된 미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작품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 작품의 특징 등의 요소를 학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예술작품을 둘러싼 인간에 대한 이해와 예술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립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보유하게 된다.

셋째,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마르 쿠룽에 표현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기이다. 이는 학습자가 세계라는 커다란 공동체를 이해하기 이전에 자신을 둘러싼 작은 세계인 가족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며 지구촌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의 긍정적인 정서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성과(2015) 중 사회·정서적인 영역에 도달하는 용이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나. 학습활동내용

본 장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응해서 학습하게 되는 과정을 다루

고자 한다. 연구참여자가 연구에 응해 학습하게 되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족 중 부모님과 보호자, 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 자녀는 성인·청소년용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읽고 동의서에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게 된다. 참여하는 가족 중 자녀의 연령대가 6-12세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읽고 동의서에 '동의함' 또는 '동의하지 않음'을 선택하게 된다. 동의서 작성은 약 5-10분 정도 사이를 두고 진행하였다.

이후 프레젠테이션 도구인 prezi를 통해 연구자가 학습자에게 프로그램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라. 교수학습지도안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prezi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의 분량은 약 15분 정도이다. 이밖에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면 연구참여자는 약 5-10분 정도 사이에 준비된 설문지를 작성하게 된다. 설문지 역시 어린이용과 성인·청소년용이 구분되어 있다. 설문지 내용은 [부록 3]과 [부록 4]에 각각 첨부하였다.

다. 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점

연구자가 본 연구에 앞서 설정한 유의점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생되었던 변수가 있었다. 이를 다음의 다섯 가지 경우로 정리하였다.

첫째, 교육프로그램에는 연구참여에 동의한 가족과 연구에 참여는 하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이 경우에 연구자는 그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 시간 분배를 비슷하게 적용해야 했다. 연구참여자 가족의 경우, 연구자는 단계에 맞추어 관찰내용을 기록해야 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에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둘째, 연구참여자가 사전에 연구참여에 응하였으나, 프로그램 당일 참석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연구자가 목표로 설정했던 연구참여 목표 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지만, 연구 참여에 응한 다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

에 응한 가족 구성원의 자녀 중 유아기의 형제가 함께 참여한 경우가 있었다. 이의 경우, 부모님이 초등생 이하의 자녀의 신호에 지속적으로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참여가 연구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넷째, 연구참여자로 응한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연구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거나 도중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의 경우엔 연구자가 연구를 진행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주진 않았다.

라. 교수학습지도안

교안은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자료, 유의점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단계에서는 시간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총 3단계로 도입(5분), 전개(80분), 정리(5분)로 분류하였다. 각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 교수-학습활동, 유의점이 포함되었다.

먼저 도입에서는 수업의 목표와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소개하였다. 전개에서는 체험 활동에 앞서 이론을 설명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연구자는 다마르 쿠룽 전등의 배경을 소개하고, 다마르 쿠룽 전등의 특징과 우리나라 문화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소개하였다. 활동에서는 연구자가 다마르 쿠룽 전등의 제작과정을 소개하고, 연구참여자는 실제로 전등을 제작해보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마무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교실의 주변을 정리하였다. 교수학습지도안은 다음의 표로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부록 9]에 첨부하였다.

[표 9] 다마르 쿠룽 스토리텔러 되기 교수학습지도안

수업명	다마르 쿠룽(Damar Kurung) 스토리텔러 되기!
학습목표	1.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살펴보며 타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해봅니다. 2.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전등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특징을 알아봅니다. 3.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마르 쿠룽 전등에 표현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학습자료	포토프레임, 줌치한지, 장식용 스티커, 나무 구슬, 마끈, 검은색 네임펜, 펀치			
단계	시간(분)	교수-학습활동		
		진행자	참여자	자료
도입	5	▶ 수업 목표 및 수업 소개 ·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수업의 목표 3가지를 소개한다.	· 수업 준비를 한다.	prezi
전개	20	▶ 다마르 쿠룽 연등의 배경 · 다마르 쿠룽 전등의 발원지를 소개하고, 대표적인 작가에 대해 소개한다.	·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한다.	prezi
		▶ 다마르 쿠룽 연등의 특징 · 다마르 쿠룽 전등에 사용되는 색상과 재료, 전등에 담기는 주제에 대해 소개한다.	·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한다.	prezi
		▶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 우리나라 연등회 및 조선후기 대표 작가 신윤복과 김홍도의 작품에 사용된 주제와 표현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 진행자의 질문에 대답한다.	prezi
활동	60	▶ 다마르 쿠룽 연등의 제작 방법 및 활동지 배부와 다마르 쿠룽 전등 제작 · 우리나라의 전통재료를 이용해 다마르 쿠룽 전등을 제작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가족 단위로 전등을 제작하도록 지도한다.	· 활동지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후, 순서대로 다마르 쿠룽 전등을 제작한다.	prezi 및 실물자료
마무리	5	▶ 정리 및 마무리	· 주위를 정리한다.	-

Ⅴ. 연구 결과 분석

1. 연구 결과 내용 종합

연구는 후반기 정기 교육프로그램 기간인 2018년 10월 6일부터 2019년 4월 30일 사이에 총 7번에 걸쳐 진행되었고, 10가족이 연구참여자로 참여하였다.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와 예약 상황 및 연구 참여자 가족의 수를 다음의 표로 정리하였다.

[표 10] 연구 결과 적용

분류	연구 참여일	교육프로그램 예약 현황	연구 참여 가족 수
1	2018.12.22.	2가족	2가족
2	2018.12.29.	5가족	2가족
3	2019.01.05.	5가족	1가족
4	2019.01.12.	4가족	2가족
5	2019.01.26.	1가족	1가족
6	2019.02.09.	3가족	1가족
7	2019.03.30.	2가족	1가족

[표 10]에 따르면, 연구 시작일인 2018년 12월 22일에는 최대 신청가능 인원 6가족 중 2가족이 수업에 예약했으며, 연구 참여 가족 수도 2가족으로 동일했다. 두 번째 연구 참여일인 2018년 12월 29일에는 최대 신

청가능 인원 6가족 중 5가족이 수업에 예약했으며, 연구 참여 가족 수는 2가족이었다. 세 번째 연구 참여일인 2019년 1월 5일에는 최대 신청가능 인원 6가족 중 5가족이 수업에 예약했으며, 연구 참여 가족 수는 1가족이었다. 네 번째 연구 참여일인 2019년 1월 12일에는 최대 신청가능 인원 6가족 중 4가족이 수업에 예약했으며, 연구 참여 가족 수는 2가족이었다. 다섯 번째 연구 참여일인 2019년 1월 26일에는 최대 신청가능 인원 6가족 중 1가족이 수업에 예약했으며, 연구 참여 가족 수도 1가족으로 동일했다. 여섯 번째 연구 참여일인 2019년 2월 9일에는 최대 신청가능 인원 6가족 중 3가족이 수업에 예약했으며, 연구 참여 가족 수는 1가족이었다. 마지막 연구참여일인 2018년 3월 30일에는 최대 신청가능 인원 6가족 중 2가족이 수업에 예약했으며, 연구 참여 가족 수는 1가족이었다.

연구 중도 포기자는 연구참여 시작 일이었던 2018년 12월 22일에 참석한 연구참여자 A1 가족 구성원 4명중 아버지와 아들로 2명이 있었다. 이밖에 나머지 연구참여일에는 중도 포기자가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 자녀는 모두 초등학생으로 중학생 이상의 연령대는 없었다.

2. 연구 결과 분석

(1) 설문답변 내용 분석

설문지는 연구자가 설정한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와 교육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오프라인 형태로 가족 당 인원 수 대로 제공되었으며, IRB의 방침에 따라 연령대별로 성인·청소년용과 아동용(6-12세) 설문지를 각각 개발하였다. 두 설문지의 내용은 유사하나 아동용 설문지의 경우 참여하는 자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로 바꾸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질문에는 해당하는 예시를 추가하였다. 설문지 항목은 3개로 설문지의 내용을 성인·청소년용과 아동용 설문지를 각

각 다음의 표로 정리하고자 한다.

[표 11]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분류	설문 항목		측정항목
1	설문 내용	다마르 쿠룽(Damar Kurung)연등에 표현할 주제를 어떻게 떠올렸나요? 주제와 주제를 선정한 경로를 각각 적어주세요.	세계시민 예술교육 목표 확인 : 작품 표현방법
	예시	-예시1. 주제선정: 생일, 기념일, 해외여행 -예시2. 주제선정 경로: 수업시간에 '신윤복과 김홍도 그림'에 사용된 구도와 기법 참고, 휴대폰 사진첩 참고, SNS 참고 등.	
2	설문 내용	이 수업을 통해 가족과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세계시민 예술교육 목표 확인 : 공동체 의식 형성
	예시	-예시1.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시2. 우리나라의 연등회와 인도네시아 연등 축제와의 ~한 공통점 및 -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3	설문 내용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세계시민 예술교육 의의 확인
	예시	-예시1.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예시2 . 타국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표 11]에 의거하여 성인·청소년용 설문지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지 1번 항목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설정한 주제와 주제선정 경로 방식을 통해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 중 작품 표현 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 설문지 2번 항목에서는 가족과 함께 참여한 인도네시아 문화 체험을 통해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 중 공동체 의식 형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 설문지 3번 항목에서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며,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다음은 아동용 설문지의 내용을 표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 아동용 설문지

분류	설문 항목		측정 항목
1	설문 내용	다마르 쿠룽(Damar Kurung) 연등에 가족의 어떤 이야기를 그렸나요?	세계시민 예술교육 목표 확인: 작품 표현방법
	예시	- 예시: 가족여행, 나의 생일, 부모님 결혼기념일 등.	
2	설문 내용	이 수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세계시민 예술교육 목표 확인: 공동체 의식 형성
	예시	- 예시1: 인도네시아의 문화의 ~한 점을 알게 되었다. - 예시2: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문화에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3	설문 내용	이 수업을 통해 즐거웠던 점 또는 어려웠던 점을 적어주세요.	수업 전반 만족도 확인
	예시	- 예시1: 가족과 함께 작업을 하여 혼자 만드는 것보다 즐거웠다. - 예시2: 전등을 직접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다.	

[표 12]에 근거하여 아동용 설문지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용 설문지에서는 성인·청소년용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은 동일하다. 하지만 아동용 설문지에는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았다. 가령 아동용 설문지 1번 문항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선정한 주제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 설문지 2번 문항에서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항만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 설문지 3번 문항에서는 수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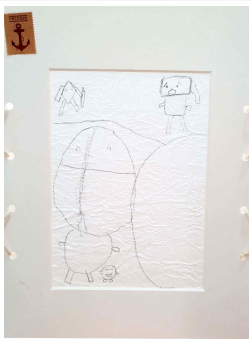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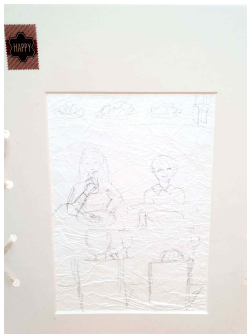
다음 장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설문답변 내용을 갖고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참여자의 자세한 설문답변 내용은 [부록3]에서 [부록8]에 담았다. 첫

째, 연구참여자 가족이 설문지 1번 문항에 답변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 가족이 완성한 작품 결과물을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연구참여자 가족이 설문지 2번 문항에 답변한 내용을 유네스코 학습성과표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 가족의 설문 답변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설문지 1번 문항 설문답변

-연구참여자 가족 A1

연구참여자 가족의 작품제작 결과물을 참고하여 설문지 1번 내용의 답변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연구참여자 가족 A1의 작품제작 결과물을 수업에 참여한 구성원 별로 나누어서 나타내었다.

작품제작 결과물			
아들(남동생)	딸(누나)	엄마	아빠
			

[그림 4] 연구참여자 가족 A1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1은 엄마와 딸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가족여행'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딸은 '가족여행, 기념일'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다. 가족의 작품 결과물을 통해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2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2

작품제작 결과물			
딸(누나)	아들(남동생)	엄마	가족 합동

[그림 5] 연구참여자 가족 A2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2는 엄마와 딸, 아들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가족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휴대폰의 사진첩을 참조하여 그렸다고 하였다. 딸은 '가족여행,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아들은 '가족여행'을 주제로 그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3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3

작품제작 결과물			
딸	아빠+딸 협동	아빠	엄마

[그림 6] 연구참여자 가족 A3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3는 엄마와 아빠, 딸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가족여행'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기억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여 그렸다고 하였다. 아빠는 '가족여행'을 주제로 하여 그렸다고 하였다. 딸은 '가족여행'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4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4

작품제작 결과물			
딸	딸+엄마	엄마	아빠

[그림 7] 연구참여자 가족 A4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4는 엄마와 아빠, 딸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기념일과 사물'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기억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여 그렸다고 하였다. 아빠는 '가족여행'을 주제로 하여 그렸다고 하였다. 딸은 '가족과의 추억, 기념일, 사물'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5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5

작품제작 결과물

아들	엄마 작품1	엄마 작품2	엄마 작품3

[그림 8] 연구참여자 가족 A5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5는 엄마와 아들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가족여행과 기념일, 사물'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아들은 '가족여행과 오락'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6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6

작품제작 결과물			
딸	아들	딸+아들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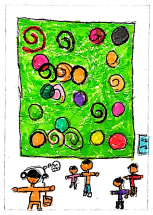
[그림 9] 연구참여자 가족 A6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6는 엄마와 아들, 딸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아들과 딸은 각각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7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7

작품제작 결과물			
아들	엄마 작품1	엄마 작품2	여동생(연구참여자 제외)
			

[그림 10] 연구참여자 가족 A7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7은 엄마와 아들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아들은 '가족여행 및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8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8

작품제작 결과물			
딸	아들(연구참여자 제외)	엄마	아빠

[그림 11] 연구참여자 가족 A8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8은 엄마와 아빠, 딸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가족여행 및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아빠는 '사물'을 주제로 그렸다고 하였다. 딸은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9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9

작품제작 결과물			
딸	아들	엄마	아빠

[그림 12] 연구참여자 가족 A9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9은 엄마와 아빠, 딸과 아들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엄마는 1번 설문의 답변 내용으로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아빠는 '가족여행 및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그렸다고 하였다. 딸은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고, 아들은 '가족여행 및 가족과의 추억'을 주제로 하여 그렸다고 하였다.

다음은 연구자참여자 가족 A10의 작품제작 결과물이다.

-연구참여자 가족 A10

작품제작 결과물			
딸(누나 작품1)	딸(누나 작품2)	아들(남동생 작품1) (연구참여자 제외)	아들(남동생 작품2) (연구참여자 제외)

[그림 13] 연구참여자 가족 A10의 작품제작 결과물

연구참여자 가족 A9은 아빠와 딸이 설문지에 참여해주었다. 아빠는 '가족여행 및 사물'을 주제로 그렸다고 하였다. 딸은 '가족여행 및 기념일'을 주제로 하여 작품을 그렸다고 하였다.

이상으로 연구참여자 가족의 설문지 1번 답변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설문지 2번 답변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 설문지 2번 문항 설문답변

다음으로 2차-분석기준표에 따라 설문지 2번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3] 2차 분석기준표에 따른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2번 문항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 ID(구분)	설문내용 키워드	적용된 학습성과 영역
A1(모)	인도네시아 문화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2(모)	가족	-인지적 영역
A3(부)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행동적 영역 중 ②
A3(모)	가족	-인지적 영역
	인도네시아 문화	-행동적 영역 중 ②
A4(부)	인도네시아 문화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②
A4(모)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5(모)	가족	-행동적 영역 중 ②
A6(모)	가족	-인지적 영역
	인도네시아 문화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②
A7(모)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8(부)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8(모)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A9(모)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9(부)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②
A10(부)	인도네시아 문화	-행동적 영역 중 ②

[표 13]에 따르면, 연구참여자마다 학습한 영역이 달랐고, 유네스코의 학습성과 영역 중 관련성이 있었던 내용 역시 각각 달랐다. 연구참여자는 대부분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을 중심으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하였다. 다음은 아동용 2차-분석기준표에 따라 설문지 2번 문

항의 해당하는 내용을 표로 나타내었다.

[표 14] 2차 분석기준표에 따른 아동용 설문지 2번 문항 분석 결과

연구참여자 ID(구분)	설문내용 키워드	적용된 학습성과 영역
A1(여)	우리나라와 공통점	-인지적 영역
A2(여)	우리나라와 공통점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2(남)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A3(여)	우리나라와 공통점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5(남)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A6(여)	우리나라와 공통점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6(남)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②
A7(남)	인도네시아 문화	-인지적 영역
A9(남)	우리나라와 공통점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A9(여)	우리나라와 공통점	-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중 ①

[표 14]에 따르면, 아동용 설문지의 내용 역시 학습한 내용과 유네스코 학습성과 영역과의 관련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아동 대부분 2번 설문 문항을 통해 측정하고자 했던 '공동체 의식 형성'을 내용을 하여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하였다.

3. 연구결과 시사점

연구자료의 내용을 종합하고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설문지 2번 문항의 질문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공동체 의식을 형성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며, 연구참여자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영역에 도달하는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2번 문항에 해당하는 질문인 “이 수업을 통해 가족과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였다. 성인 연구참여자는 총 14명이었는데, 수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답변한 참여자는 10명이었으며, 가족에 대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답변한 참여자는 2명이었고, 인도네시아 문화와 가족 모두 답변한 참여자는 2명이었다.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답변한 연구참여자의 설문내용은 주로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과 관련이 있었다.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한 연구참여자의 설문내용은 인지적 영역과 관련이 있었다.[32]

아동용 설문지의 2번 문항에 해당하는 질문은 “이 수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였다. 아동 연구참여자는 10명이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답변한 연구참여자는 6명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했다고 답변한 연구참여자는 4명이 있었다. 아동 연구참여자의 설문내용 중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문화 간의 공통점을 발견하였다고 답볍한 내용은 주로 인지적 영역 및 사회·정서적 영역과 관련이 있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징 이해로 답변한 설문 내용에서는 인지적 영역과 관련이 있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지리적 특징 이해로 답변한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인도네시아의 섬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인지함과 동시에 환경 변화에 대해 “슬프다”라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사회·정서적 영역과 관련이 있었다.

둘째, 설문지 내용을 통해 전시연계수업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2번 문항에 연구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다음은 연구참여자의 답변 중 해당 내용을 발췌하였다.

---

32) 가족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한 연구참여자의 설문내용 중 연구참여자 자신을 둘러싼 가족 간의 관계에 주목하고 상호의존성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인지적 영역과 연관 지어 살펴보았다.

·전시관람하면서 도슨트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체험할 때,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며 조화로움을 느꼈고, 인도네시아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공통점을 느낌.<연구참여자 A6(모)>

연구참여자 A6(모)의 답변을 통해 단순히 전시설명만으로는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전시연계 수업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3번 문항에 연구참여자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책이나 영상으로 체험보다 직접 체험으로 그 나라(인도네시아)를 쉽게 이해했습니다.<연구참여자 A9(부)>

연구참여자 A9(부)의 답변을 통해 학문으로만 인도네시아 문화를 이해하는 것보다 전시관의 실제적 오브제를 활용하여 세계시민 예술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습성과가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셋째,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3번 문항을 통해 연구참여자가 생각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고, 향후 후속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성인 연구참여자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주었다. 다음은 연구참여자의 답변이다.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해 볼 기억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연구참여자 A2(모)>
·다양한 문화들이 가진 표현 방법을 경험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연구참여자 A3(부)>

연구참여자 A2(모)의 답변과 A3(부)의 답변에서는 타문화의 예술작품을 참고하여 학습자가 직접 미술작품으로 표현하면서 세계시민 예술교육

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설문 답변 중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방향을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해보며 어떤 경로로 이런 공통점과 차이가 생겼는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연구참여자 A3(모)>
·타국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연구참여자 A4(부)>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받고나서 타문화권(인도네시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연구참여자 A5(모)>
·다양한 각국의 전통예술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연구참여자 A8(부)>

연구참여자 A3(모)와 A4(부)는 문화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될 때 교육이 효과적일 거로 보았다. 연구참여자 A5(모)와 A8(부)는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문화에 대해 이해할 경우 교육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다음은 설문 답변 중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대한 기타의견이다.

·이러한 교육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연구참여자 A5(모)>
·도움이 됨. 세계시민에 한 발자국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라 생각 <연구 참여자 A6(모)>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된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전등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려주시면 좋았을 것 같네요. <연구참여자 A10(부)>

연구참여자 A5(모)와 A6(모)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이 보편화되길 바라고 있고, A10(부)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에서 필요한 교육의 내용을 답변으로 말하고 있다.

다음은 아동용 설문지 2번 문항에 해당하는 아동 연구참여자의 답변이다.

·인도네시아도 특별한 날의 연등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연구참여자 A1(여)>
·인도네시아도 연등 축제를 한다는 점을 알았다.<연구참여자 A2(여)>
·우리나라에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연등행사가 있다는 것<연구참여자 A3(여)>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연등축제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연구참여자 A6(여)>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많았다.<연구참여자 A9(남)>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것 같다.<연구참여자 A9(여)>

연구참여자 자녀 6명의 답변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와 인도네시아 문화 사이에 유사한 점을 발견했다고 답변하였다. 연구참여자 A1(여)와 A2(여)의 답변에는 정확한 비교대상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답변내용에서 보조사 '도'의 쓰임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가 비교 대상으로써 생략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2번 문항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의 답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 간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 즐겁고 소중했다.<연구참여자 A2(모)>
·가족과 즐거웠던 시간을 상기하며 즐거웠다.<연구참여자 A3(모)>
·가족과 함께 많은 체험을 더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연구참여자 A5

(모)>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많음을 알게 됨.<연구참여자 A6(모)>

성인 연구참여자 4명은 가족과 함께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경험하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설문지 3번 문항에 답변한 한 성인 연구자의 답변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더욱 알 수 있었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연구참여자 A7(모)>

연구참여자 A7(모)는 가족과 함께 세계시민 예술교육 경험하면서 가족에 대해 깊게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연구참여자의 설문내용을 토대로 3가지 측면에서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Ⅵ. 결론

본 논문에서 개발한 전시연계 프로그램은 2015 개정 미술과 교과역량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를 설정 하였으며, 개발도상국 문화를 존중을 골자로 하는 문화ODA 관점에서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다음의 2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전시관에서 국제개발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하는가?”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의 발전과정을 국제개발협력의 흐름 가운데 살펴보았고, 세계시민교육 이행의 선도기관인 유네스코가 제시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 및 목표를 살펴보았다. 세계시민교육은 기존에 논의된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과 유사한 개념 및 특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갖고 발전하였다. 이에 세계시민교육과 국제이해교육 및 다문화교육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고, KOICA지구촌체험관이 진행하고 있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ODA 시행 원칙에 입각하여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었다. 특히 시행 원칙 중 ‘존중성과 포용성’의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의 주제는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연등으로 선정하였고, Aniendya Christianna(2018)의 연구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교수학습지도안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정체성’의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의 의의를 설정하였는데, 교육부(2015)가 제시한 미술 문화 이해 능력에 해당하는 내용에 맞추어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의의를 설정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 문화에 대해 이해하기’로 교육의 의의를 설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학습목표를 3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창의력’의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의 단계별 미술활동 과정 및 재료를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주제를 떠올리고, 아이디어 스케치 과정을

통해 주제를 간략하게 표현하며 실제 작품에 표현하는 과정을 마련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학습자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통해 실제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통해 실제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성과 중 어떠한 영역을 중점적으로 습득하였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성인·청소년용 설문지와 아동용 설문지의 내용을 각각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개방형 설문지의 형태로 성인·청소년용 설문지와 아동용 설문지가 각각 개발되었고, 설문 문항은 각 3문항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2번 문항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참여자의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에 도달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인·청소년용의 설문지 2번 문항에서는 “이 수업을 통해 가족과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로 제시하였고, 아동용 설문지 2번 문항에서는 “이 수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로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에 도달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APCEIU(2015)가 제시하는 세계시민교육 학습성과의 3가지 영역-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을 내용으로 하여 분석표를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결과 설문지의 답변에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설문지 2번 문항에서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 중 공동체 의식 형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성인·청소년용 설문지의 2번 문항에서,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작성한 연구참여자의 설문 내용에서는 주로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동 설문지의 2번 문항에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답변한 연구참여자의 설문 내용에는 주로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용 설문지 2번의 문항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와의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설문 내용을 통해 주로 인지적 영역 또는 인지적 영역과 사회·정서적 영역 모두 학습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성인·청소년용 설문지의 2번 문항의 질문을 통해 전시연계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성인 연구참여자는 전시설명만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와 글로벌 이슈를 접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고,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다른 연구참여자는 전시관에서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실제적 오브제를 활용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셋째, 설문지의 2번과 3번 문항의 질문을 통해 추후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성인 연구참여자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타 문화의 예술품을 직접 제작하는 체험활동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답변하였고,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 문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서 달성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가족과 함께 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답변하였다. 아동 연구참여자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은 자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문화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간접적으로 답변하였다.

본 연구는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 진행해오던 세계시민 예술교육이 문화예술교육ODA 안에서 교육의 방향성이 재조명될 때, 개발협력대상국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학계에서 미술교육을 통한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의 미술교과 역량인 미적 감수성과 미술 문화 이해 능력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의의와 교육프로그램의 학습목표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설문을 분석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교육성과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미술활동 과정이 다양한 연령층을 아울러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둘째, 연구참여자 자녀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머물러 있어 풍부한 연구 자료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이 일회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성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제한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발생되었던 문제를 토대로 다음 연구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특정 연령대의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대상자가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목표에 도달하였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세계시민교육은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학습내용과 함께 추가적으로 개발협력대상국에 대한 이해와 존중하는 마음도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협력대상국에 대한 진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발협력대상국의 문화를 알고, 문화예술품을 직접 제작해보는 과정을 통해 개발협력대상국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관점이나 교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발전할 수 있는 열린교육의 형태를 띄어야한다. 예술교과의 측면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충분히 진행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가 전시연계 수업을 통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진행하는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및 논문]

강문지. (2018).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초등 미술과 내용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강순원. (2014). 국제이해교육 맥락에서 한국 글로벌시민교육의 과제. **국제이해교육, 9(2). 1-31.**

김근영. (2018).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기초한 미술과와 사회과의 통합수업이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하교 대학원.

김명희 편저. (2015). **박물관 교육과 질적 연구.** 아카데미프레스.

김선정 외 2. (2018).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의 개념적 관계에 대한 질적 연구 : 국제교육개발협력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회, 56(2). 133-159.**

김주연. (2009). **중학교 미술교과에서 한지공예 활용방안 : 줌치기법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김지선. (2014). **지속가능발전교육에서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초등 설치미술 지도방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김지연. (2019).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지역정체성 중심 미술 교수·학습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김진희. (2017). **글로벌시대의 세계시민교육.** 박영 스토리.

김형숙. (2018). 세계시민성 신장을 위한 역량 및 미술 교육과정. **미술교육논총, 32(3), 23-47.**

김형숙. (2000). 미국의 미술관과 교육 : 미술관이 사회기관으로서 관람층과의 연계성을 담당한 역사와 이론적 전개. **한국미술교육학회, 9, 219-236.**

고은실. (2009).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현대미술과 미술교육. **예술교육연구, 7(1), 157-172.**

교육부. (2015).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2].**

곽민희. (2015).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연구 : KOICA 지구촌체험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권희연. (2017).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문화예술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나희연. (2016). **LT협동학습 모형을 적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 수업이 고등학교 2학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성제. (2015). **PBL을 적용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수업이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미치는 효과 : 중학교 2학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화체육관광부. (2017). **한국형 문화 ODA 정책과 전략수립 및 시범사업 발굴 연구.**

박남정.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으로 살펴본 미술교육의 미래교육 방향 탐색. **미술교육논총 30(3), 121-144.**

백소연·박경철. (2016). 문화분야 ODA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황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와 KOICA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57-67.**

서윤진. (2011).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환경미술교육프로그램 연구 : 초등학교 4·5·6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손기인. (2010). **타문화전시 연계 다문화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방안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유네스코. (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맞춤 학습 가이드 : 새로운 교육과정에 담은 세계시민교육.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7). 문답으로 풀어보는 지속가능발전 (SDGs) 4 - 교육 203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a). 한국교육과 SDG4-교육2030. 유네스코 한

국위원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18b). SDG4 해설서 :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교육.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성상. (2016). 아시아에서의 세계시민교육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 1-9.**
이서연. (2015).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회적 관점을 적용한 미술과 프로젝트수업 지도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이성도 외2. (2017). **미술교육의 이해와 방법.** 예경.
이윤수. (2012). **연등축제의 역사와 문화콘텐츠적 특성.**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이지연. (2008).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시각미술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미술교육논총, 23, 165-190.**
이태주. (2014). 시민교육 1 : 국제이해교육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교육이다. **계간 민주, 10, 201-210.**
정연희. (2011). 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사고의 확장. **미술과 교육, 12(1), 51-70.**
정연희. (2010). 미술교육의 사회적 가치와 실천 역량. **미술교육논총, 24(1), 1-25.**
최은영 외 4. (2017). 미술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방안 탐색. **조형교육, 64, 195-216.**
최은지. (2019).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초등 미술교육 자료 분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경구. (2017). 국제이해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으로 : 글로벌 교육패러다임의 진화 그리고 현장의 혼란. **국제이해교육연구, 12(2), 1-4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위원국의 역할과 과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문화예술교육 국제교류 사업 분석 및 추진방안 연구.
APCEIU. (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Aniendya Christianna. (2018). The role of Damar Kurung lantern as a time signal. **IBT Journal, 17(1).**
Carr, W. & Kemmis, S. (1986). **Becoming critical : Education, Knowlege, and action research.** London : Falmer Press.
KOICA 지구촌체험관. (2018). 전시 리플릿.
KOICA ODA 교육원. (2018). **국제개발협력 입문편.** SIGONG media.
KOICA ODA 교육원. (2018).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SIGONG media.
KOICA ODA교육원. (2015). **국제개발협력 실천전략.** 발간자료.
KOICA ODA교육원. (2013). **나눔을 위한 배움 우리는 세계시민 : 고등편.**
KOICA ODA 교육원. (2016).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 : 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증보판.** KOICA ODA 교육원·KCOC.
KOICA ODA교육원. (2017). **KOICA의 세계시민교육(국·영문).** 발간자료.

[참고 사이트]
경기도미술관 http://gmoma.ggcf.kr/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http://ncic.go.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s://www.arte.or.kr/
한국전통등연구원 https://www.korealantern.com/
현대어린이책미술관 https://www.hmoka.org/main/index.do
KOICA지구촌체험관 https://gv.koica.go.kr/
KOICA한국국제협력단 https://www.koica.go.kr/
KOICA ODA교육원 http://oda.koica.go.kr/
UN www.un.org/

[교과서]
김선아 외 7. (2019).『초등학교 미술6』. 금성출판사.
김정선 외 5. (2017).『초등학교 미술3』. 금성출판사.

김형숙 외 5. (2017).『고등학교 미술』. 교학도서.
심영옥 외 4. (2018).『고등학교 미술』. 와이비엠.
심영옥 외 5. (2018).『고등학교 미술창작』. 와이비엠.
안혜리 외 5. (2018).『고등학교 미술』. 지학사.
조우호 외 4. (2018).『고등학교 미술』. 미래엔.
조익환 외 8. (2018).『고등학교 미술』. 씨마스.
최정아 외 7. (2018).『중학교 미술1』. 아침나라.
최찬경 외5. (2018).『고등학교 미술』. 금성출판사.
현영호 외 5. (2018).『고등학교 미술』. 비상.
현은령 외 7. (2018).『중학교 미술1』. 리베르스쿨.
조익환 외 14. (2018).『고등학교 미술감상과 비평』. 씨마스.

부 록

[부록 1]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연구참여자 ID(A1-A30로 기입)

■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부·모, 청소년 참여 가족 구성원: _____)

1. 다마르 쿠룽(Damar Kurung) 연등에 표현할 주제를 어떻게 떠올렸나요? 주제와 주제를 선정한 경로를 각각 적어주세요. (예시1. 주제선정: 생일, 기념일, 해외여행/ 예시2. 주제 선정 경로: 수업시간에 '신윤복과 김홍도 그림'에 사용된 구도와 기법 참고, 휴대폰 사진첩 참고, SNS 참고 등)
2. 이 수업을 통해 가족과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시1.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시2. 우리나라의 연등회와 인도네시아 연등 축제와의 ~한 공통점 및 ~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등)
3.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우리 가족이 생각하는 세계시민 예술교육에 대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예시1.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기반으로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시2. 타국의 문화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

[부록 2] 아동용 설문지 연구참여자 ID(A1-A30로 기입)

■ 설문지를 작성해주세요.

(※ 어린이 여러분이 작성해주세요. 이름은 적지 마세요. 나이:_____)

1. 다마르 쿠룽(Damar Kurung) 연등에 가족의 어떤 이야기를 그렸나요? (예시: 가족여행, 나의 생일, 부모님 결혼기념일 등.)
2. 이 수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예시: 인도네시아의 문화의 ~한 점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문화에는 공통점이 많은 것 같다. 등)
3. 이 수업을 통해 즐거웠던 점 또는 어려웠던 점을 적어주세요. (예시. 가족과 함께 작업을 하여 혼자 만드는 것보다 즐거웠다/ 전등을 직접 만드는 과정이 힘들었다. 등)

[부록 3]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1번 문항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답변 내용

연구참여자 ID (구분)	1번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	측정항목
		세계시민 예술교육 목표 확인: 작품 표현방법 (주제 및 주제선정경로)
A1(모)	올해 가장 즐거웠던 여행 중 체험을 생각했습니다.	주제어: 여행 주제선정경로: 누락
A1(부)	설문 작성 안함	
A2(모)	떠오르는 가족 간의 추억들, 관련 사진 참조.	주제어: 추억 주제선정경로: 사진참조
A3(부)	가족여행, 가족들과 제주도에 가서 있었던 일들	주제어: 여행 주제선정경로: 누락
A3(모)	주제선정: 가족여행 주제 선정 경로: 가족과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선정함	주제어: 여행 주제선정경로: 기억을 통해 선정
A4(부)	가족여행 시 즐거웠던 기억	주제어: 여행 주제선정경로: 누락
A4(모)	가족여행, 크리스마스, 선물	주제어: 여행, 기념일, 사물 주제선정경로: 누락
A5(모)	해외여행, 가족여행, 자주하는 게임	주제어: 여행, 오락 주제선정경로: 누락
A6(모)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주제로 정함	주제어: 추억 주제선정경로: 누락
A7(모)	주제선정: 최근에 가족과 함께 했던 행사 중 즐거웠던 것을 생각함. 미술관 관람, 썰매타기, 캠핑 etc.	주제어: 추억 주제선정경로: 누락
A8(부)	생일선물로 준 장난감	주제어: 사물 주제선정경로: 누락
A8(모)	가족여행, 평상시 좋아하는 장난감	주제어: 여행, 사물 주제선정경로: 누락
A9(모)	가족과 보낸 즐거운 시간들에 대해 적었습니다.	주제어: 추억 주제선정경로: 누락
A9(부)	1.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2.여행 중에 아이를 위주로 바로 떠오르는 순서로 했습니다.	주제어: 추억, 여행 주제선정경로: 누락
A 1 0 (부)	베트남 여행을 갔던 기억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주제어: 여행, 사물 주제선정경로: 누락

[부록 4]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2번 문항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답변 내용

연구참여자 ID	2번 질문	측정항목 세계시민 예술교육 목표 확인: 공동체의식 형성 (가족, 인도네시아 문화)
A1(모)	연등은 대부분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1(부)	설문 작성 안함	
A2(모)	가족 간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이 즐겁고 소중했다.	가족: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좋았음 인도네시아 문화: 누락
A3(부)	다마르 쿠룽에 그들의 문화를 담는 모습을 보고 그림으로 표현하는 더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다.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
A3(모)	가족과 즐거웠던 시간을 상기하며 즐거웠다. 아시아 문화권에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등을 밝히는 문화가 많은데 그 기원이 궁금해졌다.	가족: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이 좋았음 인도네시아 문화: 아시아 문화권의 다른 나라의 등불문화 기원이 궁금해짐
A4(부)	행사의 목적은 틀리지만 비슷한 행사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4(모)	새로웠다. 우리나라 연등회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5(모)	가족과 함께 많은 체험을 더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가족: 가족과 체험의 필요성 느낌 인도네시아 문화: 누락
A6(모)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많음을 알게 됨. 전시관람하면서 도슨트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하지 못해 답답했는데 체험할 때, 각자 잘하는 것을 하며 조화로움을 느꼈고, 인도네시아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의 공통점을 느낌.(아이들은 그저 체험에 재미 위주임. 어려서)	가족: 가족과의 추억이 많음을 인지. 가족활동으로 서로의 장점을 파악 인도네시아 문화: 체험으로 타문화 이해에 도움 받음.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7(모)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문화가 있구나. 멀지만	가족: 누락

	가까운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게 함.	인도네시아 문화: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8(부)	인도네시아에도 한국과 유사한 전등갓인 다마르 쿠룽이 있고 전승이 단절되는 것도 닮아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8(모)	신에 대한 숭배를 중요시 한다는 점을 알게 됨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
A9(모)	우리나라처럼 가족적이고 기념일을 생각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9(부)	피부색, 언어 등 우리와 달라 거리감이 있었으나 문화체험으로 조금 가까워진 듯 합니다.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문화 체험으로 동질감을 느낌
A10 (부)	인도네시아에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가족: 누락 인도네시아 문화: 인도네시아에 방문하고 싶어짐

[부록 5] 성인·청소년용 설문지 3번 문항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답변 내용

ID	3번 질문	측정항목 세계시민 예술교육 의의 확인 : 세계시민 예술교육의 목표 확인 과 세계시민 예술교육이 나아갈 방향 제시
A1(모)	가깝지만 잘 모르는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표확인: 타문화 이해 유익 방향제시: 누락
A1(부)	설문 작성 안함	
A2(모)	서로의 문화를 알면 그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아 좋습니다.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체험해 볼 기억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목표확인: 문화 간 이해 기반 교육 유익 방향제시: 타문화 체험으로 달성
A3(부)	다양한 문화들이 가진 표현 방법을 경험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목표확인: 문화체험을 통해 타문화 이해 방향제시: 누락
A3(모)	이렇게 타국의 문화를 배우고 그 나라에 갔을 때 더 이해가 쉽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 교육을 통해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생각해보며 어떤 경로로 이런 공통점과 차이가 생겼는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목표확인: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경로 확인에 따른 흥미 유발 방향제시: 타문화 체험 후 해당 나라 방문 시 도움이 될 것
A4(부)	타국의 문화를 배우고 우리나라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목표확인: 타문화 기반 자문화 이해 방향제시: 누락
A4(모)	조금 이해가 되었다.	목표확인: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 방향제시: 누락
A5(모)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받고나서 타문화권(인도네시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확인: 타문화기반 자문화 이해 방향제시: 세계시민 예술교육 공급의 필요성
A6(모)	도움이 됨. 세계시민에 한 발자국 더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라 생각.	목표확인: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 방향제시: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통해 세계시민에 가까

		워짐
A7(모)	가족과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 서로에 대해서 더욱 알 수 있었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목표확인: 가족활동으로 가족의 의미 확인 방향제시: 누락
A8(부)	다양한 각국의 전통예술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목표확인: 타문화 기반 자문화 이해 방향제시: 누락
A8(모)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타문화의 고유성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표확인: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 문화체험을 통해 타문화 이해
A9(모)	우리나라와 멀지만 가깝게 느껴지고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표확인: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 방향제시: 누락
A9(부)	책이나 영상으로 체험보다 직접 체험으로 그 나라(인도네시아)를 쉽게 이해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하는 체험에 기쁨도 추가된 듯합니다.	목표확인: 문화체험을 통해 타문화 이해. 가족활동으로 가족의 의미 확인 방향제시: 누락
A10 (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가 된 점은 좋았습니다. 다만 다른 나라의 전등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려주시면 좋았을 것 같네요.	목표확인: 세계시민 예술교육을 이해 방향제시: 여러 나라의 문화 소개 필요

[부록 6] 아동용 설문지 1번 문항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답변 내용

연구참여자 ID(구분)	1번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	측정항목
		세계시민 예술교육 목표 확인: 작품 표현방법 (주제)
A1(여)	가족여행, 부모님 결혼기념일	주제어: 여행, 기념일
A1(남)	설문지 작성 안함	
A2(여)	가족여행(몰디브, 레고랜드)+떡메치기, 가족회의	주제어: 여행, 추억
A2(남)	레고랜드에 놀러갔다.<가족여행>	주제어: 여행
A3(여)	제주도 여행	주제어: 여행
A4(여)	크리스마스, 선물, 수영	주제어: 기념일, 사물, 추억
A5(남)	해외여행, 가족여행, 보난자	주제어: 여행, 오락
A6(여)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던 일	주제어: 추억
A6(남)	즐거웠던 시간들을 셨다. (맞춤법 문제)	주제어: 추억
A7(남)	눈썰매, 비틀즈 따라하기, 캠핑, 미술관(피카소 그림)	주제어: 추억, 여행
A8(여)	수영장	주제어: 추억
A9(남)	가족이랑 여행을 그렸고, 재미있었던 일도 그렸다.	주제어: 여행, 추억
A9(여)	속초 바다	주제어: 추억
A10 (여)	바다에 가서 도너츠를 먹고, 얼굴이 타고 집에 와서 잠을 잤는데 크리스마스이브여서 아침에 크리스마스가 되었다.	주제어: 여행, 기념일

[부록 7] 아동용 설문지 2번 문항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답변 내용

연구참여자ID (구분)	2번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	측정항목 세계시민 예술교육 목표 확인: 공동체 의식 형성 (나라 간 공통점 및 차이점 발견)
A1(여)	인도네시아도 특별한 날의 연등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1(남)	설문지 작성 안함	
A2(여)	인도네시아도 연등 축제를 한다는 점을 알았다.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2(남)	인도네시아에는 섬이 많다.	인도네시아 지리적 특징 이해
A3(여)	우리나라에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연등행사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4(여)	힘들었다.	체험이 어려움
A5(남)	다마르쿠룽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았다.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
A6(여)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연등축제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6(남)	인도네시아의 전통의상이나 많은 걸 깨닫고 인도네시아 섬이 무너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슬퍼	인도네시아의 문화 이해 인도네시아 지리적 특징 이해
A7(남)	인도네시아에 등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인도네시아의 문화 이해
A8(여)	아니요	새롭게 배운 점 없음
A9(남)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많았다.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9(여)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비슷한 것 같다.	우리나라와 공통점 발견
A10 (여)	없음.	새롭게 배운 점 없음

[부록 8] 아동용 설문지 3번 문항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답변 내용

연구참여자ID (구분)	3번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	측정항목 수업 전반 만족도 확인
A1(여)	오돌토돌한 한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웠다.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A1(남)	설문지 작성 안함	
A2(여)	연등을 만들며 즐거운 체험을 했다.	체험이 즐거웠음
A2(남)	매듭을 묶는게 힘들었다.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A3(여)	줄을 묶는 것이 어려웠다.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A4(여)	그림 그리는 것이 어려웠다.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A5(남)	다마르쿠룽 만들기를 할 때 재미있었다. 색칠하는게 어려웠다.	체험이 즐거웠음.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A6(여)	(시각 이미지 활용) 즐겁 100%, 어렵 1%(끈 묶을 때)	체험이 즐거웠음.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A6(남)	(시각 이미지 활용) 즐겁 100%, 나쁨 1%	체험이 즐거웠음.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A7(남)	힘들었고 귀찮았고 그림그리기가 재미있었다.	힘들었으나 재밌었음
A8(여)	우리가 행복한 지르를서 좋아서요(맞춤법 전달 X)	의미 파악 어려움
A9(남)	이 수업을 통해 인도네시아 문화를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전등도 만들어서 재미있는 수업이 되었다.	체험이 즐거웠음. 인도네시아 문화 이해
A9(여)	한지에 그림을 그릴 때 번져서 어려웠지만 가족과 함께해서 좋았어요.	가족과 함께해서 즐거웠음.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A10 (여)	실을 묶을 때 안쪽을 묶어야 해서 어려웠다.	체험 재료 다루기가 어려웠음

[부록 9] 교수학습지도안

<table>
<tr><td>프로그램 진행일시</td><td>2018.10.6. ~2019. 4. 30.</td><td>프로그램 시간</td><td>13:30~15:00</td><td>인원 수</td><td>6가족</td></tr>
<tr><td>교육 명</td><td colspan="3">세계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다마르 쿠룽(Damar Kurung) 스토리 텔러 되기!</td><td>수업 방법</td><td>가족 활동 및 개별 활동</td></tr>
<tr><td>학습 목표</td><td colspan="5">1.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살펴보며 타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해봅니다.
2.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전등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특징을 알아봅니다.
3.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마르 쿠룽에 표현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봅니다.</td></tr>
<tr><td rowspan="2">학습 자료</td><td colspan="4">진행자</td><td>참여자</td></tr>
<tr><td colspan="4">prezi 자료, 포토 프레임, 줌치 한지, 장식용 스티커, 나무 구슬, 마끈, 검은색 네임펜, 펀치</td><td>준비 사항 없음</td></tr>
<tr><td>단계 (시간)</td><td>학습 내용</td><td colspan="2">교수 - 학습활동</td><td>자료</td><td>유의점</td></tr>
<tr><td>도입 (5분)</td><td>동기 유발 및 진행사항 확인</td><td colspan="2">(교실 입장)안녕하세요. ‘태평양의 보물섬’ 전시 재미있게 관람하셨나요? 우리 가족별로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리 착석 후)오늘은 전시국가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을 갖고 예술교육을 하고자 합니다.</td><td>prezi 자료</td><td>모든 가족이 자리에 착석 후 수업을 진행한다.</td></tr>
<tr><td>전개</td><td>이론</td><td colspan="2">1) KOICA의 세계시민교육 목표와 교육프로그램 목표
KOICA지구촌체험관이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KOICA는 개발원조 전담기구인 만큼 세계시민교육에서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KOICA지구촌체험관에서는 전시대상국의 글로벌 이슈를 배우고, 전시대상국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전등 축제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연등축제를 살펴봅니다.</td><td>prezi 슬라이드 1</td><td></td></tr>
</table>

		둘째,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전등의 제작과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해봅니다. 셋째,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다마르 쿠룽에 표현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봅시다.		
전개	이론	**2) 다마르 쿠룽 전등의 발원지 :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에 위치한 Gresik 지역** 먼저 인도네시아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살펴볼까요? 여기 빨간 점으로 표시된 곳이 인도네시아가 위치한 곳입니다. (질문)우리나라는 지도상에서 어디에 위치해있죠? (대답)(아이들이 손으로 가리키며) 여기요! 저기요! 인도네시아는 17,100여개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가 위치한 자바섬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60퍼센트가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자바섬 동쪽에 위치한 gresik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1세기 이래로 중국, 인도, 아라비아 상인들과의 무역이 있었고, 외국의 여러 항선이 정박하는 곳으로 교역의 장소로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바로 다마르 쿠룽 전등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prezi 슬라이드 2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에게 질문을 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적절한 대답을 유도한다.
전개	이론	**3) 다마르 쿠룽 전등이 사용되는 축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마르 쿠룽은 라마단 기간(이슬람교도들이 금식하는 기간)에 tarawih라는 행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전등은 힌두 불교 시대 이후로 전해졌고, Giri kedation을 지배한 Sunan Prapen에 의해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prezi 슬라이드 3	
전개	이론	**4) 다마르 쿠룽 전등을 제작한 대표적인 작가 : Masmundari**	prezi	

		현대 다마르 쿠룽의 대표적인 작가인 Masmundari(1909-201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Masmundari 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다마르 쿠룽 전등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다마르 쿠룽을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데요, 특히 다마르 쿠룽 전등을 제작하는 초기 단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Imnag A.W이라는 작가는 Masmundari에게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에 조언을 해주었고, 다마르 쿠룽 전등에 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Masmundari가 제작한 다마르 쿠룽 전등은 시장에서 가치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1991년 인테리어 소품 전에서 Masmundari는 인도네시아의 두 번째 대통령인 수하르토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의 재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4	
전개	이론	**5) 다마르 쿠룽 전등에 사용되는 색상과 재료, 그리는 순서** 전통적으로 다마르 쿠룽 전등은 입체적인 대나무 틀에 기름종이 혹은 섬유재질을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섬유재질은 우기 때 다마르 쿠룽이 비에 젖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다마르 쿠룽 전등은 수채화나 아크릴을 이용해 색칠을 하며, 주로 빨강, 초록, 노랑, 남색, 그리고 검은색을 이용합니다. 이는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는 색으로 북쪽은 검은색, 서쪽은 노란색, 동쪽은 흰색, 남쪽은 빨간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마르 쿠룽 전등에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는 순서가 있다고 합니다. 종이의 맨 위 중간 지점에서 시작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립니다. 오른쪽 부분이 채워직 나서는 다시 중간 지점으로 이동해서 왼쪽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그 후에는 아래 칸으로 내려가서 다시 같은 방식으로	prezi 슬라이드 5	

		그림을 채워나가게 됩니다. 각 장면은 위-아래, 아래-위의 순서로 방향이 만들어집니다.		
전개	이론	**6) 다마르 쿠룽 전등에 쓰이는 소재와 내용** 다마르 쿠룽 전등에는 인도네시아의 의식(행사) 내용이 담깁니다. 7개월에 접어든 산모를 축하하기 위한 미토니 행사, 출산, 결혼 그리고 식물을 심고, 수확하는 과정의 내용 등으로 채워집니다. 예시를 살펴볼까요? 화면에 제시된 그림에서는 자바인들이 주방에서 의식을 준비하는 과정이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의식에서는 tumpeng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그릇에 산 모양으로 거대하게 밥을 담는다고 합니다. tumpeng 주위에는 다양한 반찬이 담긴 접시들이 놓이며, 대나무로 만들어진 쟁반 위에 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tumpeng은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삼각형, 원뿔형, 산 모양은 신에 대한 인간 삶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이때 남자와 신의 관계는 1:1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여자들은 의식을 준비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pre zi 슬라이드 6	
전개	이론	**7) 우리나라 문화 소개** **-연등회 소개** (질문) 우리 친구들 '부처님 오신날' 혹은 '석가탄신일'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언제인지 아나요? (대답) 5/22일이요!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으로 부처님 오신날(석가탄신일-5/22)을 기념하기 위한 연등 축제가 있습니다. 각 사찰에서 연등 축제가 진행되며, 최근에는 종합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연등회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되어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연등회는 등불을 밝혀 괴로움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등회에서는 불을 밝힘으로 공동체의 바람을 기원하는	pre zi 슬라이드 7	

		의식이기도 합니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풍속화 작가 : 신윤복, 김홍도** 두 작가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풍속화 작가입니다. (질문) 우리 친구들 신윤복 작가와 김홍도 작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대답) 네! (또는) 아니요! 김홍도는 주로 농촌 지역에 있는 서민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신윤복은 주로 풍류 생활을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두 작품은 모두 당대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후대에도 계속 이름을 알리는 명작입니다. 이렇게 당시의 그림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두 그림에서 당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방법(구도, 그리는 방법, 소재 등)을 살펴보고, 우리 가족의 추억을 그릴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전개	이론	**8) 다마르 쿠룽 전등의 위기** Masmundari는 다마르 쿠룽의 문화를 보존해온 1세대 작가입니다. 2015년 그의 작고 이후 다마르 쿠룽 전등의 문화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보존해야 할 자바 문화 중 일부가 사라지고 있으며, 동시에 자바인들의 지역 정체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의 보존과 함께 마찬가지로 가족과의 관계 역시 유지해나갈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다마르 쿠룽 전등의 위기를 생각하며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전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re zi 슬라이드 8	
전개	이론 및	**9) 우리 가족의 다마르 쿠룽 전등을 만드는 방**	pre	

	체험	**법 및 재료 소개** **-활동지 작성과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방법** 먼저 활동지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봅시다. 함께 여행을 갔던 때, 쇼핑을 했던 때, 외식을 했던 때 등과 같이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에 대해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장소와 서로 나눴던 이야기, 느꼈던 감정, 착용했던 옷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활동지에 담을 내용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휴대폰의 사진첩을 참조해도 좋습니다. 활동지에 작성이 끝나면 전등을 구성하는 4면 중 1개의 면을 각자 맡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순서** 먼저 활동지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10-15분 정도 한 후, 가족 구성원 당 1장씩 맡아서 준비된 포토 프레임 위에 그린 다음에 색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마끈을 이용하여 포토 프레임을 연결하여 사각형의 다마르 쿠롱 전등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재료 소개** 사용할 재료는 연필, 지우개, 페브릭 마카, 줌치 한지, 포토프레임, 장식용 스티커와 나무 구슬, 마끈입니다. 먼저 연필은 활동지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릴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브릭 마카는 한지 위에 밑그림을 그린 후 색칠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의 옷에 묻으면 지워지지 않으니 소매를 걷고 시작하겠습니다. 줌치 한지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한지로 물을 이용해 두 개의 한지를 붙인 것입니다. 주로 의류용, 전등 등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한지 위에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지울 때는 살살 지워서 한지의 면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마지막으로 스티커와 나무 구슬을 장	zi 슬 라 이 드 9	-페브릭 마카는 옷에 지워지지 않으므로 유의시킨다. -포토프레임에는 위, 아래가 구분되어 있어 위로 향하여 그림을 그리도록 살핀다.

		식용으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부분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볼까요?		
정리 (5분)		**10) 정리 및 마무리** 오늘은 이렇게 인도네시아의 다마르 쿠룽 전등을 살펴보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전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한 예술체험이 어땠나요? 다음에도 즐거운 체험으로 전시관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Exhibition-Related Art Education Program for Global Citizens

Kang, Byung-zoo
Majored i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status of South Korea has been rising in the global community in recent years, many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KOICA) in the nation have provid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exhibitions about other cultural areas and lessons associated with them in order to increase the awareness of the South Korean people as global citizens. This study set out to develop and evaluate an exhibition-related educational program for the art education of global citizenship at the Global Village of KOICA. The educational program in the study was designed to help students fulfill the subject competencie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developed within the principle of "cultur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o promote learners' understanding of culture in developing nations. The exhibition-related educational program developed in the study was implemented as a lesson by the family unit and assessed the learning achievements of students based on the "table of learning achievement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by UNESCO.

The study focused on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In what form should art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 be designed based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t a gallery?" and second, "Can learners achieve the learning goal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art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an exhibition-related educational program could be organized to reflect the "Art Cultural Understanding Capability" one of the competencies in the art subject under the "2015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and the "implementation principle of cultural ODA" and that such a program helped learners fulfill learning goals in the cognitive and social & emotional domains among the learning achievement domains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Keywords : Education Development Cooperation, ODA for culture and art education, development of an art education program, art education for global citizenship, Exhibition-related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4-21005